

경찰

7.9

급 공무원

개정 2 판

원유철의

韓國史

역사-일지

원 유 철 편저

추록

원유철의 역사일지 개정2판 추록 (전근대)

17	㉠ 사료로 추가 미송리식 토기 평북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처음 발굴되었다.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集線)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청천강 이북,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분포한다. 이 토기는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로 간주된다.
28	㉠ 내용추가 ※ 한4군 설치 내용 한나라는 해를 넘기도록(기원전 108)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러다 조선 조정의 내분 덕분에 겨우 멸망시켰다. 기원전 108년 여름이었다. 승리한 한나라의 후유증도 컸다. 섭하와 누선, 순체, 공손수 등 한나라의 내로라하는 장수들이 죄를 얻어 줄줄이 극형을 당했거나 평민이 됐다.
95	㉠ 사료추가 [참고] 당과 관계 성립 당은 거란족의 봉기를 진압한 뒤에도 돌궐의 세력이 요서지방을 압박하고 있어 우선 그에 대처해야 했으므로, 동북아시아에 깊숙이 개입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던 중 705년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죽고 중종(中宗)이 즉위함을 계기로 하여 사신을 보내어 대조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회유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발해를 요서지역의 돌궐·거란 등에 대한 공략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대조영도 그의 둘째 아들인 대문예(大門藝)를 당에 보내어 이에 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101	㉠ 내용추가 901년(효공왕 5년) 궁예는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지역적으로 고구려 유민의 호응을 얻고자 그 계승국임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후고구려)라고 하였다. 904년(효공왕 8년)에는 국호를 '마진(摩震)'이라고 고치고, 광평성(廣評省)과 병부(兵部)를 비롯한 여러 관부를 설치하는 등 중앙 정치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905년(효공왕 9년)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고, 강성해진 세력을 기반으로 신라를 병합할 뜻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911년(효공왕 15년) 궁예는 국호를 태봉이라 고치고,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라고 하였다.
102	㉠ 표 추가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126	㉠ 사료 추가 흥덕왕의 사치 금지령(834) 흥덕왕 즉위 9년, 태화(太和) 8년(834) 왕이 말하기를, “사람은 위와 아래가 있고, 벼슬에도 높고 낮음이 있어 명칭과 법식이 같지 않고 의복 또한 다른 것이다. 그런데 풍속이 점점 경박해지고 백성이 사치와 호화를 다투게 되어 오직 외래 물건의 진기한 것만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비루함을 혐오하니, 예절이 거의 무시되는 지경에 빠지고 풍속이 쇠퇴하여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감히 옛 법에 따라 밝은 명령을 펴는 바이니, 혹시 고의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진실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 권33, 「잡지」 2, 색목 (→ 신라 하대, 사회적으로 향락 풍조가 만연하고 건전한 풍속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지학사 한국사 p37))
180	㉠ 내용추가 (2) 유신지교 15개조 반포와 서경천도운동 1) 국내적 배경 ① 서경에 대한 인식 : 서경은 국초(태조)부터 ‘수덕(水德)이 순조로운’ ‘만대 대업의 땅’으로 간주되어 중시하여 왔으며, 정종(定宗) 때에는 이를 배경으로 실제 천도운동도 있었다. 이러한 천도논의가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인종조에 이르러 다시 나오게 된 것이다. ② <유신지교 15개조> 반포 : 인종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서경에 행차하여 <유신지교 15개조>를 반포하고 유신을 단행한다. 이때의 행차는 서경천도운동이 시작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 2) 국외적 배경 : 금(여진)의 흥기. 인종 초 금나라가 개봉을 함락하고 북송의 휘종, 흠종 두 황제를 금나라에 잡아가는 정강의 변(1126)을 일으켜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 건국(1127)되었다. 인종 당시는 여진의 금(金)이 요(遼)와 북송(北宋)을 멸망시키고 고려와 갈등을 빚던 시기였는데, 묘청 등은 서경으로 천도하여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며 금과 맞설 것을 주장하였다. 3) 묘청 일파의 서경천도운동 : ‘칭제건원(稱帝建元), 금국정벌’ 주장(08지9, 12서9/2-3급, 15-중) ① 정지상, 묘청 등의 서경세력은 ‘칭제건원, 금국정벌론’ 등을 표면에 내세우며 서경으로의 천도를 주장하였다. (♣ 칭제건원은 윤관의 아들 윤언이도 주장하였다.) ② 인종의 동조 : 서경에 대화궁 건설(12서7/9회, 12회), 8성당 건립 칭제건원과 금국정벌 건의에 대해서는 인종이 동의하지 않았으나, 서경천도에 대해서는 인종의 마음도 한때 움직여 인종 6년~7년에는 묘청의 말대로 서경의 임원역 땅에 대화궁(大華宮; 大花宮)을 짓고, 인종 9년에는 그 궁성 안에 8성당(聖堂)을 두고 자주 행차하기도 하였다. ③ 김부식 등 개경파의 반대(12회, 7-3급) : 서경천도운동이 추진되면 될수록 이에 반대하는 김부식 등 개경 문벌 귀족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게다가 서경에서 재변(災變 : 행차 중인 서경 궁궐에 벼락이 떨어지기도 함)이 자주 일어나면서 서서히 인종의 마음도 돌아서게 되었다. → 묘청세력은 대동강에 떡을 수장해 놓고 떠오르는 떡기름을 ‘용의 침’이라 하며 상서로운 징조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김부식 세력에게 탄로가 나면서 서경세력의 입지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3) 묘청의 난(10경북교, 11법, 11서9, 12서9/2-2급, 2-3급, 11-중) : 서경세력의 반란 ① 묘청의 난 발생(인종13~14, 1135~6)(11서7/7-3급) : 인종이 한때 계획했던 서경천도계획을 포기하자, 인종 13년(1135) 서경에서 묘청, 조광, 유감 등 서경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들은 개경 출신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군사·교통상 요지인 절령(황해도 자비령)을 차단하고는 나라와 연호 수립을 선포하였다. ② 독자적인 국호·연호 세움(15-중) : 국호를 대위국(大爲國)(4-3급), 연호를 천개(天開), 군대를 천건충의군이라 칭하였다. (cf. 국왕의 자리는 비워둔 것으로 보아, 국왕을 배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본다.) ③ 김부식 등 개경세력의 진압(총사령관 김부식)(7-3급) : 김부식은 먼저 개경에 있던 정지상, 백수한, 김안 등을 처형하고 총사령관으로 출정하여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군사 통솔의 책임자들은 김부식, 윤언이(윤관

	아들), 김부의 등이었는데, 군사 통솔의 책임자들이 모두 문반·문벌귀족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 사건은 고려 귀족사회를 다시 한 번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④ 평가 : 묘청의 난은 개경파와 서경파, 사대적 유교사상과 자주적 전통사상(불교, 풍수지리설 등), 신라 계승의식과 고구려 계승의식의 갈등 등이 복잡하게 얽혀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적 대립(모순)이 첨예하게 나타난 것이다.(11-중,15-중) (4) 묘청의 난 결과 및 영향 ① 서경의 폐지 및 북진정책 포기 :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김부식 등 개경세력이 진압하면서 고려사회는 이들에 의해 보수화가 크게 진행되었다. ② 《삼국사기》 편찬(인종 23, 1145)(10서7,12국9,12지9,12서7/3·4·11·15-중) : 김부식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삼국사기》를 편찬하여 중기 보수세력들의 신라계승의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180	㉓ 참고 및 사료 추가 [참고] 서경의 몰락과 변천 묘청의 난이 1년 만에 진압되면서 서경 세력은 몰락하고 서경의 여러 관제도 격하되거나 폐지되었다. 원래 고려는 개경의 관제를 모방하여 서경에도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두는 분사(分司)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062년(문종 16)에는 서경 주변의 영역에 서경기(西京畿) 4도를 설정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 서경기도 해체되었다. 얼마 후 서경의 지위는 일부 복구되기도 하였으나, 명종 대 조위충이 서경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다시금 대대적으로 관제가 개편되어 서경의 지위는 훨씬 더 격하되었다. 몽골 침입기인 1269년(원종 10)에는 서경 지역민인 최탄(崔坦) 등이 반란을 일으켜 북계 지역을 거느리고 원(元)나라에 항복하였다. 원에서는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여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다가, 1290년(충렬왕 16) 고려에 돌려주었다. 이후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이 되었으나 예전과 같은 번영과 위상을 누리지는 못하였다. 1369년(공민왕 18)에는 만호부로, 그 뒤에는 다시 평양부로 개편되었다.
198	㉔ 내용 추가 2. 음서제도(성종 대 제도화(8회)) : 음서 발달 고려 시대에 5품 이상의 관직 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운 인물의 후예, 혹은 왕족의 후예를 과거(科擧)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임용하는 제도. (1) 대상 ① 대상 : 왕족, 공신, 5품 이상의 문·무관인 경우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 왕족·공신의 후손(10회) : 왕족과 공신의 후예에게 음서를 지급한 경우는 특정 시기에 행해진 우대 정책으로, 문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음서의 원칙과 달리 광범위한 자손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가 많았다. ② 나이, 대상 인원 수 : ㉠ 원칙 18세 이상(그 이하 가능)(10회) :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훨씬 이른 나이부터 음서를 받았다. ㉡ 원칙 1인에게 행사(사실상 2명 이상 가능) (2) 과정 ① 정기적(1년)·비정기적 시행(10회) ② 초직(初職) : 음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초임직은 대개 이직(吏職 : 서리직)이나 산직(동정직·검교직) 등에서 대기하다가 실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12지9) ③ 이미 관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방식도 있었다. ④ 제한 : 문한직에는 진출하지 못했다(문한직은 과거급제자만 임명). ex) 한림원 등 (3) 특징 ① 귀족제 사회 특징 : 고려 사회의 귀족적 성격을 대표하는 제도로 평가 ㉠ 문벌귀족이 관직을 독점·세습할 수 있는 배경 :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주요관직에 등용(8회,15-중) → 이

	는 가문에서 관료를 지속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세습적 문벌 귀족 가문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㉑ 한품(승진) 제한 ×(10회) : 한품(승진)의 제한 없이 재상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 오히려 어린 나이에 일찍 입사하므로 과거보다 더 유리하다고 평하는 배경이 되기도 함) ※ 음서 출신자의 50~60%가 재상으로까지 올랐다 함(→ ∴ 다시 음서 가능) ㉒ 과거와의 관련성 : 음서를 거치고 다시 과거를 보는 이들도 많았다.(8회) (cf. 이 때문에 과거제도를 중시하는 관료제설 주장자들은, 고려가 귀족제 사회가 아니라, 관료제 사회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4) 조선 시기에도 음서 제도는 계승되었으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크게 축소되었다.
206	㉓ 내용 추가 전시과 제도 : 관품(官品 : 관계)에 따른 토지분급 시행 - 고려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국가는 <u>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u>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땀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u>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u> -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지급량을 줄이고,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234	㉔ 참고 추가 [참고] 귀법사의 난, 교종 승려들의 반무신란 명종 4년(1174) 정월에 귀법사 승려 100여 명이 봉기한 사건은 최씨정권이 들어서기 전의 불교계에 있었던 반무신정권을 대표할 만한 사례이다. 이 사건으로 이의방이 동원한 1,000여 명의 군대로부터 수십 명의 승려들이 희생을 당하였다. 즉 귀법사 승려의 죽음으로 인해 중광사·흥호사 등 여러 절의 승려 2,000여 명이 이의방 형제를 죽이기 위해 다시 성문 앞에 집결하자, 이의방은 부병(府兵)을 모아 중광사·흥호사·용흥사·묘지사·북흥사 등의 절을 파괴하였으며 쌍방간에 많은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238	㉔ 참고 추가 [참고] 무오정변(戊午政變; 고종45년, 1258) 문신 유경, 김준, 임연 등이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 최의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 (이를 계기로 일시적 왕정복고가 이뤄지기도 함)
239	㉔ 참고추가 [참고] 무진정변(戊辰政變; 원종9년, 1268) 김준에 의해 실각 위기에 몰린 임연과 폐위 위기에 몰린 원종이 손을 잡고 김연과 그 세력을 제거한 사건. 이를 계기로 임연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 이듬 해에는 임연이 원종과 대립하면서 임연이 원종을 폐위시키기도 하였다(1269. → 몽고의 반발로 5개월 만에 복위. 원종 폐위는 조야의 여론이 임연에 등돌리는 배경이 되기도 함).
239	㉔ 내용 수정 및 추가 (3) 원종의 입조(1269~1270) : 원종은 이후 원나라 세조를 찾아가 혼인 및 군대를 요청(1270), 원을 확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삼고자 함 (4) 이해 몽고와 재 항전을 준비하던 중에 임연은 등창으로 죽고, 아들 임유무가 권력 계승해 집권(1270).

242	㉠ 내용추가 3. 문화의 전래 및 특징 ⑤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한 고조선 계승의식 등장 : 삼국유사, 제왕운기
243	㉠ 참고추가 [참고] 조일신의 난(1352), 기철 처형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처음 조일신·기철 등과 같은 권신의 발호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조일신이 원년 9월 난을 일으켰다가 곧 처형되고, 5년 5월 기철일당 역시 숙청됨으로써 반원적 개혁정치는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44	㉠ 내용추가 2. 공민왕의 위기 (1) 홍왕사의 변(왕 12년, 1363 : 김용의 난) : 홍건적을 쫓아내고 공민왕이 안동에서 청주를 거쳐 개경으로 돌아 오는 도중에 왕을 시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1363년 왕이 개경의 홍왕사에 머물고 있을 때 김용 등이 왕을 시해하려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다. 친원과 보수세력의 음모였다. (2) 원 기황후가 공민왕을 강제 폐위하고 덕흥군(충숙왕 아우)을 왕으로 삼음(왕 12년) : 최유가 요양의 군사 1만을 이끌고 고려 경내로 침범하기까지 하나, 최영·이성계의 활약으로 격퇴하였다. (3) 노국대장 공주 사망(왕 14년, 1365) : 공민왕이 위기를 넘긴 지 얼마 뒤 사랑하는 왕비 노국대장공주가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왕은 차츰 실의에 빠져 정치에 뜻을 잃고 왕비의 명복을 비는 불교행사에 전념했다. 이렇게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불교에 빠져드는 과정에 왕은 옥천사 여자 종의 아들인 승려 신돈(辛旽 : 초명 편조)을 만나게 되었다. 왕은 그를 등용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개혁의 전권을 주었다. 미천한 승려 출신이기에 과감한 개혁을 기대했다. 1. 전민변정도감 설치(왕 15년, 1366)(12법, 12서7, 13일경1차/2·5·11-중) : 재정확보책/왕권 강화 (2) 내용 ① 신돈 주도 :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 추진. 신돈은 신진사대부들을 등용. ② 권문세족에 의해 침탈된 토지·노비를 환원조치(09국7, 11서7/1·4-3급) :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 결과 신돈은 한 때 성인(聖人)으로 불리기도 했다. ③ 국가의 재정력 증가 : 토지와 양민의 증가로 국가 재정능력 확보(11법). (3) 결과 : 개혁세력의 미숙으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45	㉠ 내용추가 및 참고 추가 (2) 요동의 동녕부 공략(왕 18년, 1369) : 공민왕은 영토 확장에도 관심을 기울여 1369~1370년 원나라가 약해지면서 힘의 공백이 생긴 요동을 되찾기 위해 인당, 최영, 이성계 등으로 하여금 3차에 걸쳐 요동을 공격하게 했다(♣ 이때 이성계를 통해 요동으로 옮겨간 동녕부를 공격하게 함). 그러나 명나라와의 충돌을 우려하여 돌아왔다. [참고] 전민변정도감의 설치 사례 전민변정도감은 1269년(원종 10) 무신 집권자였던 김준이 실각한 후 임연·임유무 부자가 김준의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자 처음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1288년(충렬왕 14), 1301년(충렬왕 27), 1352년(공민왕 1), 1366년(공민왕 15), 1381년(우왕 7), 1388년(우왕 14) 등 총 7차례에 걸쳐 다시 설치되었다. 대체로 이 기구는 실

	각한 권세가의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 전민변정도감 중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례는 1366년 신돈이 집권하며 설치한 것
256	㉠ 도식 추가 참고 농장과 과전법 성립의 관계 ※ 소유지 ——— 소유지 분급은 × (농민에 토지지급 ×) ※ 수조지 —————> 혁파 농장 (권문세족) —————> 과전 (신진관료에 지급) ↓ ↓ 경작권 보장 × 경작권 보장 (5~6명, 8~9호씩 거둬감) (경기 외는 국가에만 세금)
264	㉠ 내용추가 2. 의천의 불교활동(문종~숙종)(5~3급) 11세기에 이미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 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266 ~ 267	㉠ 날개부분추가 지눌의 법문 • 한 마음(一心)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아니 깨달음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곳은 없다. 〈지눌 정혜결사문〉 •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닦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지눌 수심결〉
270	㉠ 날개부분추가 고려말 : 보우(普愚)의 불교개혁운동(2~1급) 1. 배경 ① 정치적 격동기라는 당시의 현실과 지나친 숭불과 각종 불사에 따른 불교계의 노골적인 타락이, ② 무너진 교단의 기강을 바로잡고 청정승단을 이룩하려는 내면적 노력과 ③ 새로운 선법의 도입을 통한 선풍의 혁신이라는 개혁 요구를 만들어 냈다. ② 태고 보우, 나옹 혜근, 백운 경한 등이 원나라에서 임제종의 선법을 공부하고 귀국 2. 보우의 개혁운동 : 공민왕의 왕사가 되어 정치의 정화와 교단통합운동 전개 보우는 교단을 통합, 정리하는 것이 불교계의 폐단을 바로잡는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① 임제종 전래(13일경2차) : 임제선을 통해 9산 선문의 통합을 주장 선·교의 일치는 물론, 선에 있어서도 9산의 대립과 상쟁을 종식시키고자 함 → 이 통합 건의가 받아들여져 공민왕 5년 원융부(圓融府) 설치 ② 한양 천도 주장(공민왕 5년) : 개경에서의 여러 차례 난(이자겸 난, 무신 난), 원간섭기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혁신 방안으로 한양 천도 건의. ③ 신돈과의 갈등으로 실패 → 신돈이 죽은 뒤에 다시 국사가 되었으나,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여 정치가 극도로 문란해지면서 힘을 잃었다.
283	㉓ 내용추가 1. 고려 초기 :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 철불과 거대 석불이 유행(12지9/2-2급,9-3급) ① 【철불】광주(6회) 춘공리 철불(고려 초기 제작)(12지9/5회,8-3급) : 신라의 전통(석굴암 본존불 양식)을 이음. → 경기도 광주 지역 호족 세력의 지위를 반영 ② 【석불】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은진미륵; 광종)(11회) : 비례미·정제미는 떨어짐. → 이 지방 호족세력의 위상을 잘 반영 2. 【소조】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아미타불; 고려초vs12c말) 화엄종 본찰인 부석사 본당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 불상이다. 신라 양식(석굴암 본존불)을 계승하여 만들어졌다. 한편 아미타불이나, 무량수전의 용어를 통해 당시 아미타 신앙이 유행했음도 알 수 있다. 3. 【마애불】(고려시대 어느 시기, 보물) : 안동 이천동 마애석불 입상, 파주 용미리 마애석불(2불) 입상, 괴산 원풍리 마애 이불병좌상
288	기타 : 의학/화약/잡학교육 1. 의학 (1) 의료 제도 ① 태의감(cf. 조선 : 전의감)(12일경3차) : 의료 업무를 맡은 태의감에서 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의원을 뽑는 의과를 시행하여 고려 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② 의과 시행, 지방에 의학박사 파견 ③ 서민은 동서대비원·혜민국에서 의료 혜택 (2) 《향약구급방》 : 현존 우리나라 최고의서(07국7/10-3급) 고려 중기의 의학은 당·송 의학의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의학으로 발달함으로써 향약방이라는 고려의 독자적 처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많은 의서가 편찬되었다. 13세기에 편찬된 향약구급방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 나라 최고의 의학 서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이 소개되어 있다.
351	㉓ 명과의 무역부터 5.동남아 국가와도 교류까지 내용수정 1. 명과의 무역 : 조공무역 조선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명과는 사신이 왕래할 때에 하는 공무역과 사무역을 허용하였다. 수행원들의 노자 등을 목적으로 유숙소에서 교역이 행해지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를 사행무역이라 한다. 2. 여진과 일본 (1) 여진 : 국경 지역에 무역소 설치해 국경무역 허용(태종, 1406)(10·12-중). 한양에 여진 사신의 숙소로 북평관 설치해 조공 무역을 허락. (2) 일본 ① 동래에 설치한 왜관을 중심으로 무역하였다. ② 일본 역시 조선에 온 사신들에 의해 한양 동평관에서 사행무역을 해왔는데, 임진왜란 이후 왜사의 입경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동평관이 폐쇄되면서 동평관의 사신무역은 사라졌다. 이후부터 일본의 사신은 부산의 왜관에서 일을 보고 돌아갔다. (3) 국경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역은 엄격하게 감시를 받았는데, 이 때 주로 거래된 물화는 무명과 식량이었다. 북방민족(여진)과의 교역여진과는 설치한 무역소를 통하여 교역하였다.

	3. 동남아시아 ① 조선 초에는 류큐, 시암, 자와(자바) 등 동남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도 교류하였다. 이들 나라는 조공 또는 진상의 형식으로 기호품을 중심으로 한 각종 토산품을 가져와서 옷, 옷감, 문방구 등을 회사품으로 가져갔다. ② 특히, 류큐와의 교역이 활발하였는데,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부채 등을 전해 주어 류큐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10서9,12지9) ㉠ 참고 추가 날개 부분으로
352	㉠ 내용 추가 (1) 백성들의 생활 안정책 밑에 부분으로(책 참조) 국가는 양반 지주들의 토지 검병을 억제하고,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에게는 조세를 덜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생활이 자주 어려움을 당하자, 국가에서는 의창, 상평창 등을 설치하고 환곡제를 실시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352	㉠ 내용 추가 (2)의료 정책 밑으로 (2) 의료정책(10서9) 의료 시설로는 해민국, 동·서 대비원, 제생원, 동·서 활인서 등이 있었다. 해민국과 동·서 대비원은 수도권 안에 거주하는 서민 환자의 구제와 약재 판매를 담당하였고, 제생원은 지방민의 구호 및 진료를 담당하였다. 동·서 활인서는 유랑자의 수용과 구호를 담당하였다.
353 ~ 354	(1) 적용 법률 경국대전과 대명률로 대표되는 법전에 의해 형법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이 중에서 형벌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대명률의 적용을 받았다. ① 형법 : 중국의 대명률을 우선 적용하였고, 그에 없을 시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랐다. ② 민법 : 관습률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2) 사법기관 조선의 사법기관은 행정기관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① 중앙 : 관리의 잘못이나 중대한 사건을 재판하는 사헌부, 의금부, 형조와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그리고 노비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이 있었다. ② 지방 :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관할 구역 내의 사법권을 가졌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제반 소송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이 처리하였다. → 초기에는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많았으나, 나중에는 남의 묘지에다 자기 조상의 묘를 쓰는 데에서 발생하는 산송이 주류를 이루었다. (3) 특징 ① 형벌은 태, 장, 도, 유, 사의 5종이 기본으로 시행되었다. ② 반역죄·강상죄 및 연좌제 : 유교적 충·효의 윤리를 중시하여 반역죄, 강상죄를 가장 엄하게 다루었다.(10서9) 이 같은 범죄에는 범인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가 시행되었다(12지9). 심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고, 고을의 수령은 낮은 근무 성적을 받거나 파면되기도 하였다. ③ 상급심의 존재 : 재판에 불복시 상부 관청이나, 다른 관청에 항소를 할 수 있었다.(10서9) cf. 상급심이 다한 경우에는 상고 외의 방법으로, 신문고 등을 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실질적 기능은 미약).
354 ~ 356	㉠ 내용 추가 신분제도 밑으로 ♣ 양천제도 : 조선은 사회 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자유민으로, 조세, 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다. 천민은 비자유민으로, 개인이나 국가

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천제의 원칙에만 입각하여 운영되지는 않았다.

- ♣ 신분이동 : 조선 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신분 이동이 가능하였다. 법적으로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양반도 죄를 지으면 노비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하였다.

2. 중간계층(중인) : 전문기술이나 행정실무를 담당(1·7·11-중)

(1) 중인의 정의

- ①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의미한다.
- ② 말단 지배층 : 중인은 양반에게서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역관은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하여 이득을 보았으며, 향리는 토착 세력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 ③ 중인 신분도 직역과 신분이 대대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10-3급).

(2) 기술관(협의의 중간계층) : 음울의역(12기9), 산악도도 (신분상 지위 삭제)

① 교육/과거

- ㉠ 가내교육이나 해당관청에서 교육하고, 이후 해당관청에서 선발하거나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 ㉡ 정3품 당하관 한품서용 : 고급관료(청요직)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다(10-3급). 다만 잡과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간 후 다시 문과를 보면 그 이상도 승진할 수는 있었다.
- ㉢ 문과, 생원·진사시도 응시 가능(12기9)

(3) 향리, 서리

- ①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 (추가)
- ② 향리 : 토착세력으로 향촌사회에서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였다(7-3급, 9-3급).
 - ㉠ 문과 응시 제한(소과·대과 응시시 수령에게 허가)
 - ㉡ 원칙 무보수(토지·녹봉 지급 ×)(2-3급). 직역세습
 - ㉢ 읍사(작청 : 향리들의 관청), 단안(향리들의 명부)
- ③ 서리 : 관청에서 일하는 말단 관리

(4) 서얼(첩의 자식)(07법, 07세9, 09지9, 10경북교/9회)

- ① 양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07법)
- ② 서얼의 지위 하락 : <서얼차대법>(서얼금고법) → 과거(문과) 응시 제한(12기9/9회, 10-3급)
 - ㉠ 태종대 서얼차대 논의가 시작되어, 성종 대 《경국대전》에 서얼에 대한 차별규정이 법제화(10경북교)되면서 서얼의 차별이 실체화 되었다.
 - ㉡ 문과응시 금지, 생원·진사시 응시 금지 규정(청요직 진출제한)(13국7) : 서얼들은 중앙의 고관이 되는 길이 제한되어 중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 ㉢ 과거 자체는 볼 수 있음(관직진출은 가능)(07법, 09지9) : 무과나 잡과는 제한이 없어 무과나 잡과에 몰림(→ 기술직 천시의 배경이 됨)(09법).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반직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 ③ 조선 후기 서얼의 지위 변화 : 조선 후기 완화되기 시작 → 청요직 허통을 이룸(12기9)
 - ㉠ 기술직 중인 : 18-9c 신분 상승운동 활발히 전개 → 실패
 - ㉡ 서얼 : 역시 18-9c 신분 상승운동 활발히 전개 → 성공(철종, 신해허통)

3. 상민 : 인구 중 다수를 차지. 생산활동에 종사(11-중)

(1) 상민의 정의

- ① 평민, 양인으로도 불리는 상민은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말한다.
- ② 학교입학, 과거응시 可 : 과거 응시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므로 실상 상민이 과거에 응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2) 유형

- ① 농민 : 전세, 역역(군역, 부역), 공부(공납)의 주 담당계층(국역; 3세)(9-3급)
- ② 상인/수공업자(08국7) : 일정한 국역을 집
 - ㉠ 상인은 시전 상인과 행상 등이 있었는데, 국가의 통제 아래에서 상거래에 종사하였다.
 - ㉡ 수공업자는 공장으로 불리며, 관영이나 민영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 ③ 신량역천(07법) : 신분상 양인이나 천역을 담당한 계층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 ex) 고려시대 향소부곡민(학교·과거×), 조선시대 7반천인, 간척지도 등이 대표적
- ♣ 백정(12-중) : 고려시대 화척(禾尺)과 같은 존재. 조선시대 도살업자를 지칭하는 말로 굳어짐

4. 천민 : 노비

(1) 사회적 지위

- ①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07법,09지9)
- ② 원칙 국가에 대한 권리·의무 없음 : 학교·과거×, 전세·역역·공납 의무×.(12경간)
- ③ 노비 관련 법률 :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때, 그 소생 자녀도 자연히 노비가 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일천죽전).

(2) 유형

- ① 고려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한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는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가옥에서 사는 외거노비가 있었다.
- ② 외거노비 : 경제적으로는 양인전호와 비슷한 처지.
 - ㉠ 외거노비는 주인과 별도로 살며 자기 재산(토지, 가옥 등)을 가질 수 있었다.
 - ㉡ 자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10국9)
 - ㉢ 신공(身貢) 납부 의무 :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신공을 바쳤으며, 공노비도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11-중)

㉡ 날개 부분으로 내용 추가

족보의 의미

내가 생각건대, 옛날에는 종법이 있어 대수(代數)의 차례가 잡히고 적자와 서자의 자손이 구별지어져 영원히 알 수 있었다. 종법이 없어지고서는 족보가 생겨났는데, 무릇 족보를 만들에 있어 반드시 그 근본을 거슬러 어디 서부터 나왔는가를 따지고 그 이유를 자세히 적어 그 계통을 밝히고, 친함과 친하지 아니함을 구별하게 된다. 이로써 종족 간의 의리를 두터이 하고 윤리를 바르게 할 수 있었다. <안동 권씨 성화보>

㉡ 전체 내용 수정

(1) 향촌 지배세력 : 사족(士族)

- ① 향촌 사회에서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은 사족(士族)이었다.
- ② 사족은 향안(鄉案)을 작성하고, 향규를 제정하였다 : 향안은 향촌 사회의 지배층인 지방 사족의 명단으로,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에 각 군현마다 보편적으로 작성되었다(12국9).
- ③ 사림은 도덕과 의례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고,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며, 족보 편찬을 통해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2) 향회, 유형소의 설립 : 지방 사족들의 자치기구(7회) 및 수령자문기구

① 유형소(향소; 향청)(13경간/2-2급)

- ㉠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유형소(留鄉所)였다 :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던 향리(鄉吏) 등을 규찰하여 향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향촌 자치 기구였다.
- ㉡ 수령 자문 및 지방민 통제 : 수령을 도와 지방행정 자문, 향리 규찰(5-3급), 풍속 교정 및 향촌교화.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방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갔다(08지9).

358
~
360

- ㉔ 간부 : 좌수, 별감
- ② 향회/향규 :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족은 그들의 총회인 향회(鄉會)를 통하여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하였는데, 이들 향회의 운영 규칙이 향규(鄉規)였다(13경간).
- ③ 향안(사족명부)에 입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음(2-3급) : 사족들만 참여
 - ♣ 경재소(京在所) : 지방의 유향소와 연결, 중앙 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제도로써,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2·5-3급)

♣ 조선후기 향회·유향소(향청)의 변화

- ㉑ 선조 대 경재소가 혁파되면서 유향소 명칭이 향청(鄉廳)으로 변경됨 : 향청으로 변화되면서 수령의 하부 관아(부아(副衙), 이아(貳衙))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것으로 본다.
- ㉒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 : 사족들의 향촌자치 기능의 약화
- ㉓ 사족이 아닌 자들도 참여 : 신향(新鄉)이 수령권(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 진출, 향촌 운영과 총액제 수취에 대해 영향력 행사

(3) 향약(鄉約) 시행(3·5·7회, 2·5·11-중)

- ① 성립 : 전통적 농민조직에 유교 윤리 가미(전통적 농민공동조직을 유교적 공동체 윤리로 대체)(5·11-중)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 ② 보급 : 지방사족들이 주도(7회), 사족중심의 지배력 강화 위해 보급
 - ㉑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 ㉒ 조광조가 처음으로 여씨향약 실시(16c 중중; 최초) → 기묘사화로 실패(5회, 7회)
 - ㉓ 이황과 이이에 의해 우리 체질에 맞게 수용(16c 후반 명종~선조) : 16세기 향약이 보급되는데 크게 기여함. 이황은 경상도 예안에서 향촌 교화를 위한 자치 규약으로 예안향약을 일으키고(명종11, 1556), 울곡도 자신이 수령을 역임한 청주에서(서원향약), 외가가 있는 해주에서(해주향약), 선산이 있는 파주에서 각각 향약을 실시하였다.
 - ♣ 이황의 향약이 사족 중심의 자율적 성격이 강하였다고 한다면, 이이의 향약은 '해주일향약속', '사창계약속'처럼 시기와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향약으로 변용되었다.(7회)
- ③ 특징 : 향약은 '향촌 규약'의 준말
 - ㉑ 향약은 다양한 규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과실을 서로 지척하여 고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신분 질서를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만일 향촌 사회에서 이러한 규약을 어길 경우에는 향약 자체적으로 처벌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 ㉒ 향약은 사림파들의 지방지배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단순히 교화적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유향소나 서원 등 지방지배기구를 통해 향약을 실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향촌지배를 관철시켜 나갔다.
→ 이들 향약에서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부세의 수취, 환곡의 분배, 군역의 차출 등에 관여하여 향권을 행사하였다.
 - ㉓ 남녀, 모든 신분 참여(전 향민 참여) : 다만, 사족과 평민 간에 상하적 규율(2-3급)하여 지방 사람들의 지방민(농민) 지배 강화에 기여하였다.(5회, 2-3급)
 - ㉔ 간부 : 도약정, 약정, 직월(7회/5-3급)
- ④ 역할
 - ㉑ 유교적 규범 확산(유교식 공동체) : 삼강오륜 중심의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풍속을 교정하였다(15회). 이를 통해 지방민에게 유교적 규범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㉒ 사족의 향촌지배력 강화(사족중심 공동체) : 주민교화와 통제 수단(7회).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 ㉔ 향촌 내 상부상조 :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는 규정을 두어 향촌 사회의 안정을 꾀하였다.
- ♣ 폐해 :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 정약용, “향약의 폐단이 도적보다 심하다”

♣ 조선후기 이후 향약의 변화

- ㉕ 농민 수탈기구가 되기도 함(12회)
- ㉖ 수령이 향약을 주도해 나감(정조 때).
- ㉗ 19세기 후반에는 동학이나 위정척사 운동에서 향약이 활용되기도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도 식민지 당국에 의해 식민 통치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4) 서원(書院) 설립

① 성립과 보급

- ㉙ 16세기 이후 각 지방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서원도 향약과 함께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다.
- ㉚ • 백운동 서원(16c 중중, 최초의 서원) : 풍기군수 주세붕의 건의로 설립. 고려시대 성리학자 안향 봉사. (12서9)
- 소수서원(16c 명중, 최초의 사액서원) : 풍기군수 이황의 건의로 최초의 사액서원 설립. 백운동서원에 ‘소수’라는 사액을 내림.
- ㉛ 이황과 그 제자들의 노력에 의해 서원 보급·확산

② 특징

- ㉜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 ㉝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 ㉞ 16c 서원 건축 유형 : 사원의 가람배치 + 주택 양식이 결합한 독특한 양식(12회). 주위의 자연과 빼어난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경주의 옥산 서원과 안동의 도산 서원이 있다.

③ 역할 및 영향 : 사족들의 교육·향사 기능(5회/11-중)

- ㉟ 교육 : 양반자제들에 대한 교육 담당(사족들만 교육). 청금록 존재(사족학생들의 인명부)
- ㊱ 향사 : 지역선현에 대한 제사 기능. 문묘는 X.
- ㊲ 16세기 중반부터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학설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2서9)
- ㊳ 서원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사림을 결집,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08지9/12·14회) → 조선후기 봉당의 근거지 역할(봉당이 격화되는 근거지)(8-3급)

♣ 조선후기 서원의 변화 : 갑술환국 이후 크게 남설(숙중) → 영조대 서원 대폭 정리 → 대원군 대 서원 혁파(47개소 제외)

(5) 사창(社倉) : 사족중심의 지방자치적 구휼제도(08지9)

향촌 사회(군현)에서 자치적으로 실시된 사창 제도는 양반 지주(사족)들이 향촌의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적 구휼제도였다. 이는 유교적 덕행의 실현이자, 사족중심의 향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최소한의 주민 안정책이었다. (12기9)

2. 촌락의 농민 조직 : 촌락의 농민 조직으로 두레와 향도가 있었다.

- ① 두레(논농사), 품앗이(밭농사)는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 ② 향도 : 농민들의 공동노동조직인 향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2일경1차/5회, 2·11-중)

향도는 불교와 민간 신앙 등의 신앙적 기반과 동계 조직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모두 띠었다. 주로 상을 당하였을 때에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다. 상여를 메는 사람인 상두꾼도 향도에서 유래하였다.

358	㉠ 날개 부분으로 내용추가 해주 향약 입약 범례문 무릇, 뒤에 향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적어서 모임이 있을 때에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約正)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율곡전서> ㉡ 날개 부분으로 내용추가 [참고] 한국의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향약은 사람과들에 의하여 향촌지배원리로 받아들여져서 중종대에 조광조 일파의 급진사립파에 의한 도학정치의 일환으로 경향 각지에서 향약이 실시되었으나 그들의 정치적 실패와 함께 향약에 의한 지방지배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중종 12년(1517) 경상감사 김안국에 의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의 언해본이 출간되고, 선조대에 향약의 전국적인 시행 논의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확산되어 갔다. → 17세기 이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향약이 실시되었다. ㉢ 각주 내용추가 ㉠ 수령 자문 및 지방민 통제 : 수령을 도와 지방행정 자문, 향리 규찰(5-3급), 풍속 교정 및 향촌교화.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방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갔다(08지9).
364	㉡ 광해군 전체 내용 수정 1. 정치 : 복인집권, 실리적 중립외교(13일경1차) (1) 광해군 즉위 ①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 소생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세자로 책봉되어 많은 공을 세웠다. 임란이 끝나고 도 9년이나 더 집권한 선조가 1608년에 병으로 죽자, 왕위를 물려 받았다. 광해군은 즉위 후 전쟁의 뒷수습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② 광해군은 봉당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에는 이원익을 비롯한 남인, 이항복 등의 서인, 유희분 등 소북과 정인홍·이이첨·이산해 등 대북 사람을 골고루 등용했으나, 왕권 유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복인의 전횡에 휘말렸다. (2) 광해군과 대북파의 강경정책 : 성리학적 명분론에 어긋나는 '패륜' → 사람들의 지지가반 상실 ① 광해군의 5현 문묘종사(1610;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와 복인의 회퇴변척(광해군3, 1611) 정인홍이 남인의 추앙을 받던 이언적과 이황을 문묘 제사에서 삭제하고, 이를 반대하는 성균관 유생들을 축출하여 유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이들 대신 자신들의 스승인 조식을 문묘에 종사하여 복인의 학문적·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시도한 것이었으나(08국7), 이를 계기로 사람들의 지지가반만 잃고, 조식의 문묘종사는 이루지도 못했다. ② 임해군 살해(1609)와 계축옥사(광해군5, 1613; 폐모살제) 광해군과 대북파 복인 정권은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자 즉위 직후 친형 임해군을 유배(1608)보내 이듬해 죽였다. 또 광해군 5년에는 8살의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하여 강화도로 유배보냈다가 다음 해 죽이고(1614), 인목대비마저 서인으로 낮추어 서궁(西宮 : 덕수궁)에 유폐시키는 등(14-중) 유교적 명분을 상실하였다. 소북파도 이때 제거되었다. ③ 실리적 중립외교 추진 : 명나라와 후금(청) 사이의 등거리 외교(13일경1차/1·5·14-중, 14회). → 대명의리 훼손

(3) 대외관계 : 명분보다는 실리외교 중시(12법/5-3급)

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 ㉠ 1618년(광해군 10년) 후금이 명에 전쟁을 포고하자, 명은 군사를 파견하여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대해서 원군을 요청하였다.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후금 공격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다.
- ㉡ 명나라의 요청으로 강홍립 군대 파병(광해11, 1619)(12경간/10-3급) :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1619년(광해군 11년)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밀지]를 내렸다. 이에 강홍립은 조선군의 출병이 부득이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적진에 통고한 후 군사를 이끌고 후금에 투항하였다.(13일경1차) 이에 대해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은 이를 명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였다.
- ㉢ 이 후에도 광해군은 명이 모문룡(毛文龍) 부대를 압록강 입구의 가도(假島)에 주둔시켰을 때,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금과 친선을 도모하여 중립적인 정책을 취했다.
- ㉣ 일본과 기유약조 체결(광해1, 1609; 국교 재개(14회)) : 대마도(쓰시마 섬) 도주와 맺은 강화 조약. 조선 정부는 대마도주와 기유약조를 체결함으로써 대마도를 통한 일본과의 외교를 간접적으로 허용하였다.

㉤ 인목대비의 광해군 비판 : 인조반정명분 → 삭제

2. 전후 복구 사업 및 무너진 왕조 질서 재건

(1) 정치

- ① 성곽[성지]와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방에 힘을 기울였다.
- ② 경덕궁(서궐) 건설(1617, 광해군 9년) : 인왕산 기슭에 왕기가 있다는 풍수의 주장에 따라 돈의문(서대문) 부근에 경덕궁을 건설했다. 이는 창덕궁, 창경궁과 더불어 조선 후기 중심 궁궐로 이용되었으며, 영조 36년(1760)에는 경희궁으로 바꾸었다.
- ③ 파주 천도 시도 : 상업 입국의 요지인 교하(파주)로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도 세웠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2) 경제·사회

- ① 토지조사사업과 호적조사사업 실시 :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로 만들어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렸고, 전쟁으로 파폐해진 산업과 국방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 ② 대동법 경기도에 처음 시행(시범 실시; 즉위년, 1608)(12법/12-14회, 10-14-중) : 이원익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기도를 대상으로 공납을 각종 현물(특산물) 대신 쌀로 거두는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3) 문화

- ① 허준《동의보감》 편찬(12법/14회, 14-중) : 전란 중에 질병이 널리 퍼져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을 되살려, 세자 때부터 허준과 정작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였다.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2009).
- ② 동국여지승람, 국조보감, 경국대전, 악학궤범, 고려사, 용비어천가 등 국초에 간행되었던 문헌들을 재간
- ③ 적상산 사고 설치(10회) :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에 사고(史庫)를 새로 설치하는 등 문화중흥에도 힘을 기울였다.

㉤ 날개 부분으로 내용추가

[국제정세] 후금 건국(1616) 및 명과 전쟁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에 조선과 명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압록강 북쪽에 살던 건주의 여진족 추장 누르하치가 홍경노성을 근거로 주변의 여진족들을 복속하고 ‘대금’[후금]을 건국하였다(1616, 광해군 8년). 계속하여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후금은 1618년(광해군 10년) 명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하였다. 이에 명은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 날개 부분으로 내용추가

㉠ 전체 내용 수정

1. 인조반정(12일경3차) : 서인의 집권(12경간, 12법/1-3급)

(1) 인조반정(1623, 광해15) : 서인 주도(11법)+남인 참여해 복인정권 몰락시킴(11지7/4-14-중)

- ㉠ 배경 : ㉠ 폐모살제/회퇴변칙 ㉠ 대명의리 배반 ㉠ 대북정권의 취약성 : 복인 자체 당파적 특성이 약하여 대북과 소북으로 분열되는 등 집중된 힘을 갖지 못하고 분열되었다.
- ㉠ 이괄의 난(인조 2년) : 논공행상에 불만(12법, 12일경3차/4회)
반정공신인 이괄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 한때 수도까지 진격했으나, 수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곧 진압되었다(인조는 공주까지 피신감). 이후 이괄의 잔당은 후금에 투항하여 후금 침입시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 ㉠ 권력 장악 : 인조의 즉위 후에는 반정의 중심 인물들이었던 서인 공신들이 큰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거사할 때 동원한 강력한 군사력을 한동안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치권의 재편에 가장 중요한 권한인 인사권을 전조(銓曹)의 장관을 제치고 행사하였다.
- ㉠ 이후 조선의 정국은 서인이 우세를 점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남인 이원익이 영의정에 영입). 서인은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람을 등용하고 국혼은 서인계만이 해야 한다는 ‘숭용산림’(崇用山林)과 ‘국혼물실’(國婚勿失)을 표방하였다.

(2) 인조반정 이후 서인, 남인의 봉당정치 : 봉당정치의 이념적 구현(공존기)

- ㉠ 서인과 남인의 공존기 시작(견제와 균형의 원리) : 당파 간(서인과 남인)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한동안 유지해 나갔다. (09지7/5-3급)
- ㉠ 명에 대한 의리명본론 강화(13일경1차/1-3급) : 실리보다는 명분
이후 서인과 남인은 명에 대한 의리 명본론을 강화하고 반정 정책을 추진하여 병자호란을 초래하였다.

365

※ [참고]

인조는 공신세력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남인을 함께 등용하여 봉당 간의 견제를 유도하면서 왕권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서인과 남인은 학문적 뿌리도 다르지만, 정치사상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있었다.

- ㉠ 서인의 정책은 치인(治人)에 역점을 두고 제도개혁을 통한 부국안민을 추구한 반면, 동인은 선비들의 수기(修己)에 역점을 두어 치자의 도덕성 제고를 중요하게 여겼다.
- ㉠ 서인은 재상중심의 군력구조를 지향하고, 재무구조의 개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비속량과 서얼허통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남인들은 농촌 경제의 안정에 치중하여 수취체제의 완화와 중소지주 및 자영농의 안정을 중요시하고, 서얼허통이나 노비속량 등 신분제 완화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다찾우 354p)

(3) 광해군은 강화도, 제주도로 유배되다, 인조 19년(1641)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병사했다.

2. 호란(胡亂)(12일경3차) : 친명배금 정책과 후금[청]의 침입

(1) 정묘호란(인조 5, 1627)

- ㉠ 배경 :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배금 정책(5-3급)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이들은 멸망해 가는 명에 친선을 표하고 후금과의 관계를 끊었다. 후금의 신경을 더욱 자극한 것은 반란에 실패한 이괄의 잔당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인조가 부당하게 즉위했다고 호소한 사건이었다.
- ㉠ 과정
 - ㉠ 침입 : 이 무렵 강성해진 후금이 조선에 형제의 관계를 맺자는 요구를 해 왔으나 응하지 않자,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다(1627.1.13). 후금군은 3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와 평안도 의주, 정주, 신천, 꾀산 등지를 거쳐 황해도 평산까지 이르렀다.
 - ㉠ 강화도로 피난 : 후금은 전쟁보다 강화를 원했고, 강화도로 피난을 간 조정도 아직 후금과 싸울 준비가

- 되어 있지 않아 최명길(崔鳴吉), 이귀 등의 주화파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의에 응했다(3월3일; 정묘화약).
- ㉔ 정봉수 등 의병활동(압록강 하구 지역 : 1월말~6월쯤)(11번/12회) : 정봉수와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특히,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하여 화의가 이루어졌다.(※ 화약을 맺고 돌아가던 후금의 군대는 평안북도 철산의 용골산성을 근거로 활약하던 정봉수 의병 부대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다.(다찾우 p352))
- ③ 결과 : 조선의 숭명사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게다가 후금을 앞보는 척화론이 갈수록 강화되어 양국관계는 점차로 악화일로로 걷게 되었다.
- (2) 병자호란 과정(인조 14, 1636) cf. 12c 금의 군신관계 요구(인종) : 사대관계 수용
- ① 배경 : 청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 주전론의 우세(12경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조선에 대하여 형제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꿀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신하들은 외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화론(이귀, 최명길 등 인조반정 공신들), 명분을 내걸고 강력히 응징하자는 주전론(김상헌 등)으로 갈라졌다. 결국 주전론으로 기울고, 이에 따라 청 태종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1636.12월 초).
- ② 과정 : 남한산성에 갇힌 채 항전(3·9회, 15-중).
- ㉕ 청은 10만의 대군으로 압록강을 넘은지 5일 만에 서울을 유린하고, 7일 만에 왕과 대신들이 피난해 있는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 ㉖ 국왕과 왕세자의 몽진 : 세자 일행만 강화도로 피난하고, 국왕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갇힌 채 항전하게 되었다.
- ㉗ 주전파와 주화파의 대립(김상헌 vs 최명길)(10자7/12회, 4-3급) : 조정에서는 전쟁 수행 여부를 놓고 김상헌·정온을 중심으로 한 척화파와 최명길 등의 주화파 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 주화파(최명길) : 강화 후 복수 주장)
- ㉘ 인조 삼전도의 굴욕(14-중)(삼배구고두레 통한 굴욕적 강화) : 당시 남한산성에는 1만 4천명의 군인과 50일간의 식량만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어서 싸움이 불가능했고, 강화도까지 함락당했다는 소식까지 겹쳐 인조는 45일간의 농성을 풀고 삼전도(현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의 청 태종 진영에 나와 항복했다(인조 15, 1637년 1월 30일).
- ㉙ 조선인의 저항 : 병자호란 때도 강화 전·후로 여러 곳에서 의병이 봉기했다. 특히 박철산이 이끈 의병 부대는 용강 부근의 적산에서 적의 주력부대를 맞아 완강하게 저항했다. 의주 부윤 임경업(林慶業)은 청의 요청으로 명군 정벌 파병시에도 명군과 내통하여 명군을 돕고, 또 인조 20년(1642)에는 명과 연결하여 청을 치려고 계획하다가 실패하고 청에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 ③ 결과 : 청과 사대관계 수립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사대관계]를 맺고, 청은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그리고 김상헌을 비롯한 강경 척화론자들을 인질로 데려갔다(※ 이 가운데 홍익한, 윤집, 오달제는 심양에 끌려가서도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다 죽음을 당했는데, 이들을 삼학사(三學士)라 한다.). 수십만의 전쟁포로도 발생하였다.
- (3) 호란의 영향 : 조선후기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강화, 북벌운동의 형성
- ① 격렬한 주화·척화 논의를 거쳐 인조 말엽부터 송시열 등 서인 산림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척화론과 의리 명분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 ② 이 시기에 각 학파는 대동법과 호포법 등 사회·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과 대립을 하기도 하였다.
3. 인조 대의 정치 상황
- (1) 정치 : 서인정권의 주요 정책
- ① 북벌론 제기 : 오랑캐에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 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권유지를 위해 전개한 면도 있었다.
- ② 산림직 설치 : 산림 등용

③ 어영군[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이 설치되었다.

④ 네덜란드인 벨테브레(박연으로 개명) 등 표류 : 훈련도감에 배속시켜 홍이포 등 서양무기의 제작법, 조종법을 연구시킴. 병자호란에도 참여하여 동료 2명은 잃고, 벨테브레만 살아남음.

(2) 경제

① 대동법 강원도 확대 실시(인조 원년, 1623) : 조식의 건의.

② 영정법 시행(전세 개혁; 인조13, 1635) : 매년 풍흉에 따라 전세를 달리하는 차등수조를 포기하고, 매년 1결당 4두로 전세를 고정함

㉠ 날개 부분 내용추가

[참고] 이괄의 난(인조2,1624)

인조반정 후 이괄은 자신이 이등공신에 책봉되고 임무도 변방 방어의 한직으로 밀려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이괄은 중앙의 금위병력의 허약성을 알았기에 쉽사리 난을 일으켰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평양의 도원수 군대 역시 금과의 대처로 인해 쉽게 군사를 움직일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괄은 인조 2년 정월 12,000의 병력에 황왜(降倭) 300여명을 선봉에 세워 도성으로 남하했다. 이 난으로 인조는 한때 공주로 까지 파천하였고, 이괄은 도성을 점령하여 홍안군 제(堤)를 왕위에 추대하기도 했다. 이괄은 2월 11일 싸움에서 패배 후 남진하여 숙영하던 중 부하들에게 피살되었다.

㉠ 날개부분 내용추가

후금이 요구한 강화를 위한 사전 논의[4종뇌한]

후금은 호서(胡書)를 보내 강화를 위해 다음을 논하자고 하였다.

첫째 사르후 전쟁(심하 전투, 1619) 때 조선이 명을 도와 출병하였고, 둘째 모문룡을 숨기고 그에게 식량과 말 먹이를 공급하여 양국의 우호를 그르쳤고, 셋째 모문룡을 조선에 머물게 하여 후금의 도망민을 받아들이고 후금의 땅을 빼앗게 하였으며, 넷째 선칸(先汗)과 신칸(新汗)에 대하여 애도와 축하(吊賻)의 사절이 없었다.

㉠ 날개 내용추가 국제 정세

[국제정세] 청(淸) 건국(인조14,1636)

누르하치(태조, 재위 : 1616~26)의 후금은 요서지방과 내몽고를 정복하여 세력이 점점 더 커지더니, 1636년 후금의 홍타이지(태종, 누르하치의 8째 아들, 재위 : 1626~43)는 국호를 청(淸)이라 고치고 수도를 심양에 정하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다. 3대 황제인 순치제(예친왕 섭정, 재위 : 1643~61) 시기에는 명나라 수도였던 북경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다(1644).

㉠ 사료 최명길의 주화론 제일 마지막에 표 추가

㉠ 날개 내용추가

병자호란 강화 조건(12조문)

(1) 청과 조선은 군신의 의를 맺을 것.

(2) 명에서 받은 고명책인을 바치고 명과의 교호를 끊으며, 조선이 사용하는 명의 연호를 버릴 것.

(3) 조선 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여러 대신의 아들(아들이 없는 자는 동생)을 인질로 청에 보낼 것.

(4) 청의 정삭(正朔)을 받고, 공현의 예를 행하며 사신을 보내어 봉표하되 이들 의절은 명과의 구례와 같이 할 것.

(5)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조선은 기일을 어기지 말고 원군을 파견할 것.

(9) 조선은 신구 성곽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 것.

366

367

㉠ 효종 전체 내용 수정

1. 효종의 즉위

인조가 재위 27년에 타계하고, 청에 인질로 잡혀갔다 돌아온 둘째 왕자 봉림대군이 소현세자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니 이가 효종이다. 봉림대군은 청에 우호적이었던 소현세자와 달리 아버지 인조가 삼전도에서 당한 수모를 복수하기 위해 북벌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효종과 서인의 북벌운동

(1) 북벌정책 추진(10서9/9회, 8·14-중) ※ 서인 산림 송시열을 등용해 추진

- ① 산림 등용 : 송시열·송준길·김집 등 서인이면서도 재야에서 학문을 닦던 충청도지역의 젊은 산림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 한편 허적·허목·윤선도 같은 저명한 남인 인사들도 등용하여 봉당연합의 조화를 이루어 나갔다.)
- ② 효종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송준길, 이완(8-3급, 9회) 등을 높이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였다.
- ③ 어영청의 확대 : 인조대 금군의 하나로 설치된 어영군[어영청]이 2만여 명으로 확대되면서 북벌의 핵심군영이 되었다(10-3급).

(2) 나선정벌(羅禪征伐)(12일경3차) : 2차례 걸친 러시아(나선)(14회) 정벌 파병(10지7)

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충돌이 일어나자, 청의 요구에 따라 효종 5년(1654)에 변급, 효종 9년(1658)에 신유가 이끄는 조총부대를 영고탑[흑룡강] 등지에 2차례 파견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 총수병(조총부대)의 실력을 입증하였다.(10·14-중)

3. 효종 대의 정치 상황

(1) 경제

- ① 대동법 충청·전라도 확대 시행 : 김육의 건의로 경기도에만 시행되던 대동법을 충청·전라도에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 ② 양척동일법의 시행(양전에 관한 자[尺]를 통일) : 전세를 매김에 있어서 토지의 등급에 따라 양전척을 달리 하는 이른바 수등이척제를 폐지하고, 똑같은 자로 측량하는 동일양전척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 ③ 화폐유통을 위해 상평통보를 주조하기도 했다.
- ④ 《농가집성》 편찬(신속)(12경간)

(2) 문화

- ① 시헌력 채택(12법/5-3급, 12회) : 김육의 노력으로 아담샬이 만든 청나라의 새로운 역법이 도입되었다.
- ②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 표류 : 효종 4년(1653) 표류해 온 네덜란드인 하멜(Hamel)이 가져온 조총 기술을 도입하여 북벌에 필요한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게 하였다.

㉡ 현종 전체 내용 수정

■ 예송논쟁 특징

- 17c 예학의 발달 : 도덕윤리 중심의 형식논리를 중시하는 예학의 발달(4회)
- 예송논쟁

- ①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 문제와 연관(11지9, 11지7)
- ② 서인과 남인의 대립(8회) : 왕권 강화와 신권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11지9)
- ③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입장이 예론으로 충돌하게 된 사건이다. 하지만 예송논쟁 단계까지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면서 봉당정치의 큰 틀은 유지하였다.

⑨ 참고 내용 추가

[참고] 주자가례(朱子家禮)

『주자가례』에 따르면 장자(長子)가 죽으면, 그 어머니는 3년복(만2년)을 입고, 차자(次子) 이하 아들이 죽으면 기년복(1년)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⑨ 숙종 전체내용 수정

■ 한국정치 특징

(1) 소론 박세채에 의해 처음으로 탕평책 주장(『서경』 구절)(12지9)

- ① 숙종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 ②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한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③ 즉 탕평정치를 표방하기는 하나 명목상 탕평에 그침. → 영조代 가서야 실제 실시됨

(2) 국왕 주도의 급격한 정국 전환

숙종 때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봉당과 견제하는 봉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한국(09지7/3-1급)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① 왕권에 의한 타율적 균형(국왕권 강화)
- ② 집권봉당의 교체를 통한 왕권강화 도모(6회) : 지금까지의 당파연립 방식(봉당 간 균형)을 버리고, 국왕이 주도 봉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 대두(08지9).
- ③ 상대당에 대한 보복과 사사가 빈번히 행해짐(08법) : 정쟁에서 패하면 크게 탄압

(3) 결과 : 봉당정치의 변질(공존×)

- ① 한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 ② 특정 봉당이 정권을 독점하는[상대세력의 존재를 인정 않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 ③ 정치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되었으며, 언론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 ④ 봉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 자체도 불안해졌다.

369

1. 숙종의 즉위

16년간 집권한 현종의 뒤를 이어 14세에 왕위에 오른 숙종은 46년간 장기집권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봉당연립 방식을 버리고, 봉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당시에는 '한국(換局)'이라 하였다. 한국정치운영은 말하자면 군주가 내각을 자주 교체하여 신하들의 충성심을 경쟁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과 비슷했다. 봉당이 바뀌면서 패배한 봉당이 참담한 보복을 당하여 봉당싸움이 가장 치열하고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었다.

2. 한국정치(봉당정치의 변질)(10서9,11지9,11지7/6-14-중)

처음에는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1) 경신한국(경신대출척; 숙종 6, 1680)(12일경2차) : 서인 집권

① 배경 : 남인의 권세 강화

- ㉠ 남인의 군권 강화 : 숙종 즉위 초에 집권한 남인은 허적·윤휴 등(온건한 '탁남')이 주동이 되어 북벌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서 '도체찰사부'라는 새로운 군정기관을 부활시켜 병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허적이 체찰사가 됨). 한꺼번에 18,000여 명의 무과 합격자를 뽑기도 했다.

- ㉡ 유악(油軛) 사건 : 남인 영수 허적이 자신의 조부 허잠의 시호를 맞이하는 잔치에서 궁중의 유악(기름 천막)을 왕의 허락없이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숙종이 크게 분노.

- ㉔ 남인으로 권력이 편중되자 숙종은 이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② 과정 : 서인의 역모고변(허건의 옥사; 삼복의 변)
 - ㉕ 남인의 군대 강화를 두고 외척과 서인세력은 남인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변(12법) : 김석주 등이 허건의 서자 허견이 종친 북창군·복선군·복평군(3복) 등과 역모를 꾀한다고 고변하면서 숙종이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을 교체하였다.
 - ㉖ 이 사건을 계기로 훈척이 두드러지게 진출하여 이후 정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남인이 축출된 자리를 서인이 대거 차지하였다.
- ③ 결과 : 서인 집권과 남인 실각
 - ㉗ 노·소 분열(15일경2차) : 상대당에 대한 처벌 문제로 대립
 경신환국 이후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서인의 남인처벌 과정에서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강경파; 노장세력)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온건파; 신진세력)으로 갈라진 것이다(08지9/3-2급). 이후 노론과 소론은 남인과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였고, 남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뒤에는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으로 정국의 반전이 거듭되었다.(3-2급)
 - ㉘ 허적과 윤휴 사형 : 윤휴는 송시열에게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
- (2) 기사환국(숙종 15, 1689) : 남인 재집권(12법/9회)
 - ① 배경 : 장희빈 아들 '세자' 책봉문제(후일 경종)(12법)
 숙종 14년 10월에 후궁 장씨(장희빈)가 왕자를 낳았다. 장씨는 남인과 연결되어 있는 역관집안 출신으로 궁녀로 들어와 이 무렵 위계가 내명부 정3품 소의였다. 숙종 15년 정월 숙종은 낳은 지 두 달 된 왕자의 명호를 '원자(元子)'로 정하고자 하였다.(※ 원자는 단지 첫 아들이란 뜻을 넘어 세자(世子)가 될 아들이란 뜻으로서 정치적으로 차기 왕위를 승계할 후계자로 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 ② 과정 : 서인 송시열 반대 vs 남인 찬성
 - ㉙ 서인 : 왕비 인현왕후의 나이가 아직 젊으므로 시기상조라고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 ㉚ 숙종은 이를 고집하여 결국 원자로 정하고, 장씨를 승격하여 희빈으로 봉하였다.
 - ③ 결과 : 남인 재집권과 서인 실각. 송시열이 유배 후 사사됨
 - ㉛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하라는 숙종의 명에 따라 잡혀 오는 길에 정읍에서 죽었다.
 - ㉜ 숙종은 인현왕후 민씨를 투기를 일삼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왕비에서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친정으로 내치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㉝ 숙종 16년(1690) 4월부터 남인 신료들이 세자 책봉을 거론하여 6월에 책봉하였다.
- (3) 갑술환국(숙종 20, 1694)(12일경2차) : 서인 집권(소론 집권)
 - ① 배경 : 폐비 민씨 복위문제(12법)
 - ㉞ 숙종 19년 무렵에는 폐위된 인현왕후전 소속 궁인출신의 최씨가 새로 후궁이 되어 장씨 세력의 지지 기반을 위협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 ㉟ 게다가 숙종이 폐비 사건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간파한 서인들이 폐비 복위문제 언급.
 - ② 과정 : 숙종이 서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남인을 내침. 이후 서인들이 정국 주도. 갑술환국은 봉당 사이의 힘의 대결이나 어떤 이념적 쟁점을 둘러싼 대립보다는 전적으로 숙종의 뜻에 의해 진행되었다.
 - ㊱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이이와 성혼을 다시 문묘에 배향함으로써 서인의 정국 주도 입지가 확인되었다.
 - ㊲ 폐위되어 사제에 있던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장씨는 다시 희빈이 되었다(1694).
 - ③ 결과 : 서인 집권과 남인 실각
 - ㊳ 노·소 봉당 : 대체적으로 소론이 우세한 가운데 노론이 일부 안배되어 있는 형세가 만들어졌다. 이후 약 15년간은 노·소간의 대립보다는 공존의 분위기가 강해 이후 등장하는 탕평 정국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 ㉠ 남인 실각 : 낙향해 지방세력화 함(3~2급) → 지방에 서원·사우가 남설되는 배경이 됨
갑술환국으로 그 때까지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던 남인 대부분이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 또는 파직당하였다. 남인은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로까지 전락하였다.
- ㉡ 무고의 옥(숙종27, 1701)(12일경2차) : 장희빈은 결국 1701년 인현왕후가 죽었을 때 그가 죽도록 저주를 하였다는 혐의로 사사당하였다(誣蠱의獄 : 복위한 왕비를 무술(巫術)로 저주하다 옥사한 사건).
- ㉢ 장희빈이 사사(賜死)되면서 그 아들인 세자(경종)를 보호하는 문제로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였다. 소론은 죄인으로 죽은 장희빈의 소생이지만 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경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론은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이후 영조)을 지지하였다.

(4) 병신처분(숙종 42, 1716) : 노론의 집권.

- ① 해묵은 회니시비 논쟁에 대해 숙종이 ‘아버지가 중하고 스승이 경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윤증을 옹호하면서 소론을 지지하였다(1716.3월). 이에 소론이 노론을 더욱 압박하자, 숙종은 다시 ‘윤증의 말이 그르고, 송시열의 말이 옳다’는 논지를 내세워 다시 소론을 내치고 노론을 등용하였다(7월).
- ② 병신처분으로 정국 주도 봉당이 소론에서 노론으로 바뀌었다.
- (5) 정유독대(숙종 43, 1717) : 노론 이이명과 숙종의 독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할 것을 논의함. 독대 형식으로 이뤄진 대리청정 결정에 대해서 소론 측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대리청정은 시행되었고, 숙종 46년 6월(1720) 숙종이 죽을 때까지 약 3년간은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숙종 사후에는 봉당 사이의 이러한 대립의 쟁점에 숙종의 뒤를 잇는 경종과 영조의 왕위 승계문제까지 개입되어 충격을 다루는 상황으로 진전됨으로써 봉당 사이의 대립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발전해 갔다.

3. 숙종대의 주요정책 : 전란의 피해복구와 국가 재정비사업이 일단 마무리

(1) 정치

1) 국방 강화

- ① 금위영의 설립 : 5군영 완성(8~3급, 9회, 14회). 숙종 6년(1680) 집권한 서인은 남인이 장악했던 훈련별대를 정초군과 통합하여 금위영으로 발족시켜 5군영제를 완성시켰다.
- ② 숙종 말년에는 남구만의 노력으로 세종 때 설치했다가 폐지한 ‘폐사군’의 일부를 복설하여 압록강 연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 ③ 강화도 내성, 북한산성, 평양성, 안주성 등이 잇달아 축조되어 방위체제가 훨씬 강화되었다.
- ④ <요계관방도> 제작 : 조선후기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대되면서 숙종대 북방의 군사지역을 상세히 그려 넣은 지도인 <요계관방도>가 편찬되었다.

3) 각종 기념사업

- ① 대보단 설치(숙종 31, 1704) : 대명의리론(중화계승) 반영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원병을 보내준 신종과 전쟁에 참여한 명나라 장수들을 제사하는 대보단을 창덕궁 후원에 설치하였다. (cf. 만동묘 건립 : 송시열의 유지로 사족들은 숙종 대 화양동 서원(송시열 배향)에 만동묘를 건립하여 명나라 황제를 제사지냈다.)
- ③ 이순신 사당에 ‘현충’이라는 호를 내리고(1707, 숙종 33), 의주에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여(1709)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2) 경제

- ③ 양전사업 실시 : 숙종 말년에는 삼남지방에서 양전사업이 완료되어 총 100만 결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 수세지는 66만 7,800결이었다.

(3) 사회

- ① 장길산의 난(숙종 23, 1697) : 10여 년 전부터 황해도 구월산을 무대로 활약해 오던 창우 출신 장길산 농민군의 세력이 더욱 커져서 서북지방이 어수선했고, 서울에서는 중인과 서얼이 장길산 부대와 연결하여 새왕조를 세우려다 발각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 ② 세계적인 소비기의 도래(17c말~18c초) : 이 시기에도 잇따른 흉년과 홍수·질병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1693

년에서 1699년 사이에 약 142만 명의 인구감소 현상을 가져왔다. → 숙종 말년 전국 인구는 680만 명으로 증가(1720; 실제로는 약 1천만 이상)

(4) 문화

- ① 《경국대전》을 보완한 《대전속록》, 《열조수교》 등을 비롯하여 각종 국가 통치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편찬사업이 활기를 띠었다.
- ② 지도편찬 : 숙종대 왕명으로 서양지도인 <곤여만국전도>(마테오리치)를 8폭 병풍으로 제작하여 관상감에 두도록 하였다.

㉠ 낱개부분 내용추가

박세채의 탕평론(숙종9,1683)

『서경(書經)』 「홍범편(洪範篇)」의 무당무편의 뜻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대저 황국의 도는 인륜같이 큰 것부터 사물의 소리와 동작에 이르기까지 그 의리의 중도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천하 사방의 사람으로 하여금 올 바른 것을 취할 데가 있게 하면,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 여러 별이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이 서민으로부터 군자에 이르기까지 치우치거나 공정하지 못할 근심이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인·서인의 당목은 선조 조에 시작되었습니다. …… 어진 자는 반드시 등용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반드시 물러나게 하여 평이하고 명확한 이치를 밝히소서.”

㉠ 참고 내용추가

[참고] 회니시비(懷尼是非)

송시열은 윤증(1629~1714)의 스승이자 아버지 윤선거의 친구였다. 윤선거가 죽자 윤증이 송시열에게 묘갈명을 부탁하였는데, 송시열은 윤선거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한 것과, 또 윤선거가 윤후의 입장을 따랐던 것에 반감이 있어 이를 기피하였다. 이에 윤증은 스승 송시열에게 반감을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송시열과 윤증 사제지간의 알력을 이른바 ‘회니시비’라고 한다. → 이것이 노소 대립을 심화시키는 한 배경이 되었다.

[참고] 노·소 대립

- 송시열과 윤증은 모두 충청도 출신이지만,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 윤증은 소론의 영수로 갈라서게 되었다.
- 노론은 대의명분을 존중하고 내수외양, 곧 민생안정과 자치자강을 강조했으며, 소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개척을 주장한 점에서 정책적 차이가 있었다.

㉠ 경종 전체내용 수정

(1) 경종의 즉위(장희빈 아들) : 소론의 집권+남인 일부참여

숙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장희빈의 아들로 33세의 경종이었는데, 그를 따르던 소론이 정권을 장악했다.

② 소론의 노론 견제 : 김일경·목호룡이 역모 있다고 고변

소론이 노론 핵심 인물 대거 처형(09국9), 노론 4대신 처형 등 노론 50~60여명이 처벌당함

㉠ 영조 전체적인 내용 수정

1. 영조의 즉위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죽고, 31세의 연잉군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영조이다.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의 아들로 서 노론에 의해서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었다가 왕이 되었으므로, 영조 초기에는 노론이 집권했다. 이 시기는 청나라가 강희(4대, 재위 : 1661~1722), 옹정(5대), 건륭(6대, 재위 : 1735~1796) 연간의 융성기(강건성세)를 맞아 조청관계가 안정되면서 내치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 영조가 통치한 53년간은 청나라의 전성기와 유사한 조

선왕조 중흥기였다.

2. 탕평정치(완론탕평) : 국왕중심의 정국 운영

(1) 배경 : 한국 정치 이후의 봉당간의 극한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

공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과 견제의 정국운영 형태가 붕괴되고 상대당에 대한 보복과 사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정운영이 봉당의 사사로운 이익 중심으로 흘러갔다(3-1급). 또한 영조 초반 노론의 일당전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론의 독주가 지속되었다(‘신임의리’ 문제).

- ① 정미한국(영조3, 1727) : 영조는 즉위 초 노론과 소론을 고루 기용하고자 하였으나 과격한 노론의 보복 정치가 일어나자, 소론을 중심으로 급격한 정권 교체를 단행하였다. 이것이 탕평 이전의 마지막 한국이다.
- ② 이인좌의 난(영조4, 1728; 무신란) : 이인좌는 소론·남인세력과 중소상인, 노비를 규합하여 청주 등지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지만 진압되었다. 무신란(戊申亂)을 진압한 영조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본격적으로 탕평을 추진하였다.

(2) 완론탕평 시행(12국9/7회)

탕평 정치는 영조 때 자리잡았다. 영조는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 봉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1) 탕평파 육성(8회) :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 운영(14회)

- ① 당파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07세9) : 당파의 강경론자들을 배제하고 온건한 세력들을 등용해 봉당간의 대립을 약화시키고자 함
- ② 조제보합의 탕평책 : 노론·소론·남인·소북 등 사색을 고루 등용하였다.
- ③ 탕평과, 탕평비(성균관), 동색불혼 등 시행
 - ㉠ 탕평비(蕩平碑) 건립(1742), 탕평과 실시(1772) : 성균관 반수교 위에 탕평비를 세워 성균관 유생들의 당론을 금하도록 꾀하였다.(10법)
 - ㉡ 동색불혼 : 같은 당파에 속한 집안간의 결혼을 금지하기 위해 ‘동색금혼패’를 집집마다 대문에 걸게 하였다. 당색결집을 막고자 함.

2) 봉당 약화(사족권 약화) : 국왕권 강화

봉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론의 주재자로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이후 정조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 ① 3사 언론권 약화(07국9, 10국7), 산림직 허구화(산림의 존재 부정)(10법) : 공론정치 약화
- ② 서원 대폭 정리(10·12법, 13경간) : 지방 사족들의 권한을 약화. 봉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던 서원·사우의 사사로운 건립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긴 170여개소의 서원·사우에 대한 철퇴를 강행함으로써 서원 남설에 철퇴를 가했다.
- ③ 이조전랑권 폐지(이조전랑권 약화)(13경간/9-3급) : 이조전랑이 3사의 관리를 선발하던 관행(통청권 : 청요직 인사 선발권) 폐지(8회). → 전랑의 인사권이 재상인 이조판서에게 돌아감(탕평파 대신들의 권한 복구; 왕권과 재상권의 강화).
- ④ 한림법(한림회전법)의 개혁 : (조정에서 공론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던) 이조 낭관과 더불어 한림들이 자신의 후임을 자천하는 제도(한림 자천권)도 폐지하였다.

(3) 의의 및 한계

영조가 탕평 정치를 실시하면서 왕은 정국의 운영이나 이념적 지도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봉당의 정치적 의미는 차츰 줄어들었다.

- ① 영조의 탕평책은 봉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강력한 왕권으로 봉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

	② 기타 ㉠ 새로운 당(‘탕평당’)을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받음 : 붕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 국왕의 개인적 역량에 크게 의지해야 하는 것으로 국왕에게 급작스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지속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었다. ㉢ 척족이 등장하는 계기가 됨(3-2급) : 노론대신과의 유대관계(훈인관계)를 통해 강경파들의 반대를 수습하려다가, 오히려 왕실 외척이나 중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을 키우게 되었다. 이는 후일 세도정치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 영조의 주요 정책 표 일부수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리 해주세요)
372	㉤ 날개 부분 참고 내용추가 [참고] 탕평의 의미 탕평은 서경에서 나온 말로, 임금의 정치가 한쪽을 편들지 않고 사심이 없으며, 당을 이루지도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374 ~ 377	㉥ 정조 전체적인 내용수정 1. 정조의 즉위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는 비명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로서, 영조의 탕평정치를 계승했다. 정조는 세손 때는 물론 왕위에 오른 뒤에도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론벽파로부터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정조는 세손 때부터 독서광으로 불릴 만큼 학문을 닦아 자신감을 가지고 군사(君師)의 군주상을 표방했다. 그래서 자신을 ‘만천명일주인옹’이라 칭하면서 모든 시냇물을 비추는 달처럼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폈다. 정조의 글은 뒤에 《홍재전서》로 간행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군주는 동서고금에 없었다. 2. 탕평정치(준론탕평) : 국왕중심의 정국 운영 (1) 배경 영조대의 정국은 오히려 탕평당(蕩平黨)이란 새로운 붕당을 낳았고 후기에는 척족이 대두하여 특권세력으로 발호하는 폐단이 야기되었다(3-2급). (2)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준론탕평 시행(09지7,12서7,13일경1차/6회) 당파간 세력관계의 조정에 역점을 둔 영조의 정책이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탕평지지자들 속에 새로운 척신당(戚臣黨)을 만들어낸 한계에 대한 반성이었다. 의리와 명절이 결여된 세력의 조정으로서는 국왕의 위엄을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1) 시시비비가 분명한 자들을 등용 ① 정조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여(09지7,15일경3차/6회)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과 환관 등을 제거하였다(6회). ② 그 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소론과 남인 계열도 중용하였다. ③ 규장각, 초계문신제도 :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하였다. (15일경3차) ④ 남인시파 대거 등용 ㉠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남인시파를 대거 등용(정조 12, 1788)(6·8회) : 재제공을 비롯한 남인세력 본격적으로 등용(이가환, 정약용 등)(6회)

- ㉔ 남인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왕권 강화하려 함(07국7)
 2) 봉당 약화(사족권 약화) : 봉당의 근거기반 약화
 ① 3사 언론권 약화, 이조전랑권 완전 혁파(07국9,09지9)
 ② 정치운영의 중심을 비변사에서 의정부로 옮기고자 함(재상의 정책결정권 강화)(10-3급)

(3) 왕권강화에 대한 자신감 표현

- ① 만천명월주인옹 : 정조 자신을 초월적 존재에 비유
 ② 군주도통론에 입각하여 '의리주인(義理主人)'을 강조함(6회)
 ③ 침전에 '탕당평명실'이라는 편액을 달아 놓음(14국9)
 ④ 상언과 격쟁 활성화(12지9) : 일반 백성의 여론을 수렴(국왕과 백성의 관계 연결)

2) 봉당정치

- ① 시파와 벽파의 분열(1788년~1795년 사이에 표면화) : 시·벽파 분열이 표면화되면서 이후 정국은 시파와 벽파를 기준으로 이합집산 해나갔다. 4색봉당의 존재보다는 시·벽파 두 파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특히 정조를 지지하는 시파의 부각은 벽파에게는 커다란 위협의 대상이었다.
 ② 신해박해(정조15, 1791; 진산사건/윤지충 신주소각사건) : 전례문제로 최초의 서학탄압 발생
 '정학이 바로 서면 사학은 당연히 소멸할 것이다.'는 대응으로 온건하게 대처 → 정조의 지지세력인 남인과 연결된 때문.
 ③ 영남만인소(1792) : 그간 금기시되어 온 임오의리문제를 제기함. 사도세자 서거 30주년을 맞아 영남지방 사대부들이 연명하여 상소를 올려 사도세자의 무고와 정조의 군주권 강화를 통한 개혁을 촉구.
 ④ 문체반정운동 : 타락한 명·청대의 패관소품 문체(박지원 등 노론 북학파의 신체문)를 금지하도록 하고, 순수한 6경 고문(정통 고문)의 문체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다(→ 박지원 등 노론 세력에 대한 견제).(9회) 이는 한편으로 서학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국왕이 정국 반전을 노린 것이라 보기도 한다.
 ⑤ 오회면교(五晦筵敎; 정조24, 1800.5.30.) : 정조가 '5월 그믐날 경연에서 내린 교시'로, 정조의 정국 운영에 대한 구상이 담겨있었다고 한다(남인 등용을 밝힌 글이라고도 하는데, 이설이 있다). 이 구상 발표 후 얼마 안 있어 정조가 사망하였다(→ 이 때문에 정조 독살설의 한 근거가 되었다.)

㉕ 날개부분 참고 추가

[참고] 규장각(정조 원년)

규장각은 본래 역대 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하기 위한 왕실 도서관의 기능을 가지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여기에 비서실의 기능과 문헌 기능을 통합적으로 부여하고, 과거 시험의 주관과 문신 교육의 임무까지 부여하였다.

- 교서관을 흡수하면서(정조 원년 12월), 규장각을 내각, 교서관을 외각이라 함
- 창덕궁(주합루)과 강화도에 설치(정조 5년)하여 각각 내각, 외각(외규장각)이라 하였다.

375

㉕ 날개 부분 참고 추가

[참고] 천주교(서학) 박해

18c 박해	19c 박해
• 신해박해(정조, 1791) • 온건 대처(정조의 남인세력보호)	• 신유박해(순조, 1801) • 대대적 탄압(노론벽파의 남인시파 탄압)

㉕ 날개 부분 참고 추가

[참고] 금등지사(금등에 관한 일)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게 하였는데, 훗날 그 일을 후회하며 쓴 친필 문서[금등]이 있다는 것이다.
(※ 정조가 언급은 하였지만, 그 실물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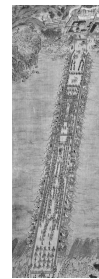
㉠ 참고 내용추가

♣ [참고] 정조의 능행차

- 정조는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자주 화성에 행차했는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회갑을 기념하는 1795년의 행차에는 약 1,800명의 수행원과 800필의 말이 수행하여 그 위엄이 대단했으며, 신작로를 만들고, 한강에는 수십 척의 배를 묶어 처음으로 배다리를 만들어 건너갔다. 화성에 가서는 노인들에게 양로연을 베풀고, 빈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문과와 무과시험을 치러 선비들을 격려하고, 야간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 행차가 끝난 뒤에는 행차에 관련된 일정, 비용, 참가자명단, 행차그림 등을 기록하여 《원행을묘정리의궤》로 편찬하고, 김홍도 등 화원을 시켜 대형 병풍그림으로도 제작했다. 이 병풍그림이 지금 여러 종류가 전해져 당시의 정치와 문화수준이 어땠던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흥환어행렬도(화성행차도)(7·9회)



주교도
(09지7/9회
2-3급)

㉡ 전체적인 내용수정

정치

1. 순조(1800~1834)의 즉위

정조가 돌아가고 어린 임금 순조(11세 즉위)와 헌종(8세 즉위; 1834~1849, 효명세자 아들) 그리고 '강화도령'으로 알려진 시골 소년 철종(19세 즉위; 1849~1863)이 잇달아 즉위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적 실권은 왕의 외척과 서울 노론 명문가에게 돌아갔다. 3대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1) 신유박해(순조, 1801)^(14회) : (남인)시파 세력에 대한 탄압

정권을 장악한 정순왕후와 벽파 세력이 정치적 반대파였던 시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박해(정조가 규장각 통해 양성한 인물들 대거 축출), 장용영 혁파

(2) 국왕권 약화됨^(09지9) : 영·정조대 개혁정치 무위로 돌아감

- ①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했던 탕평정치 붕괴^(4-3급) : 정조의 탕평 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결과적으로 세도 정치의 발미가 되었다.
- ② 규장각 허구화(도서관리 기능만 남게 됨), 장용영 폐지

[참고] 세도가문(경화사족)의 집권과정^(11국9)

① 정조 사후 정순왕후 일파의 집권(순조) : 노론 벽파 집권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영조의 계비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조 때 소외되었던 노론 벽파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2. 붕당정치 파탄 : 소수 가문의 권력독점(8회,5·14-중) ① 붕당은 물론, 탕평파와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09지7) : 왕실의 외척이 세도를 명분으로 정권을 잡음(08국9). ② 정조가 등용하였던 재야 세력인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이 권력에서 배제되어 사회통합에 실패(09지9) : 학문적·당적 기반이 결여된 채로 주요 가문에 의해 정국 운영 3. 19세기 세도정치기의 상황 (1) 정치제도 변화 ④ 교육/과거 기능 쇠퇴 : 권력의 독점과 매관매직에 의한 관직배분(08국9/8회) 세도 정치기에는 관직이 매매되는 등 비리가 만연하였으며, 탐관오리들의 부당한 조세 수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과거 시험의 합격자를 남발하고 뇌물이나 연줄로 인사를 농단 → 지방수령 자리는 매관매직의 대상이 되어 버려 이들에 의한 지방민 수탈이 극에 달하게 됨)
380	㉠ 임술민란 아래 → 참고 진주민란 추가
381 ~ 383	㉠ 전체적인 내용수정 1. 붕당정치의 전개과정 (1) 성립기(선조~광해군) 1) 선조 : 사림의 집권과 붕당 발생 선조가 즉위하면서 그 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① 동·서 붕당 :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후,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② 남·북 붕당 :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2) 광해군 : 북인의 권력 독점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2) 공존기(인조~현종) ① 서인+남인의 공존 :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② 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③ 예송논쟁(현종) :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3) 환국기(숙종~경종) ① 숙종 때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② 처음에는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③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4)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①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여러 세력을 등용 : 소론, 남인, 서얼 등 ② (영조가) 탕평 정치를 실시하면서 왕은 정국의 운영이나 이념적 지도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봉당의 정치적 의미는 차츰 얹어졌다. ③ 한계 : (영조의) 탕평책은 봉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강력한 왕권으로 봉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 (5) 19세기 세도정치기 ① 봉당은 물론, 탕평파와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② 재야 세력인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권력에서 배제하여 사회 통합에 실패하였다. 2. 봉당정치의 특징 및 수행기구 (1) 특징 : 공론이 중시됨. 3사의 연관과 산림이 사람들의 공론을 주도해 나감(08법) (2) 수행기구 ① 비변사 : 공론이 중시되는 정국이 되어 합좌기구인 비변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② 3사, 이조전랑 : 상대세력을 견제하고 자기세력을 옹호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3사 연관과 이조전랑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③ 산림, 서원(지방)(5회) : 한편,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산림이 출현하였고, 서원이나 향교가 지방사족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3. 4색 봉당과 각 봉당의 입장 (♣ “심화부록 17” 참조) (1) 동인·서인 ① 선조 : 서경덕 학파와 이황 학파, 조식 학파가 동인을 형성하였으며, 이이 학파와 성혼 학파가 서인을 형성하였다. ② 광해군 : 북인은 중립 외교를 취하는 등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2) 서인·남인 ①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자,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 양명학, 노장 사상 등은 배척당하고, 이황과 이이의 학문, 즉 주자 중심의 성리학만 조선 사상계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②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은 명에 대한 의리 명분론을 강화하고 반청 정책을 추진하여 병자호란을 초래하였고, 인조 말엽부터 송시열 등 서인 산림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척화론과 의리 명분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③ 17세기에는 예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예학이 발달하였는데, 효종 사후 현종 대에는 이것이 예송논쟁으로 표출되었다. : 서인은 주자가례 절대화(예의 보편적 적용=왕사동례), 남인은 주자가례 상대적 적용(예의 차별적 적용=왕사부동례)을 주장하였다. (3) 노론·소론 ① 노론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분을 존중하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② 소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14일경1차, 15일경3차)
383 ~ 386	1. 중앙 / 지방 / 교육·과거 (1) 중앙 1) 비변사(비국)의 강화 ①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초에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회의기구로 설치되었다. ② 임란 이후 :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최고기구가 됨(07법,07국9,13일경1차/5-11-중) ㉠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구성원이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고(9회), 그 기능도 군사 문제 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 의정부와 6조의 권능 무력화(07법,07국9,13기9,15일경3차/5-3급). 왕권 약화(07법,07국9,13일경1차/9회) : 이와 같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자,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③ 세도정치기 : 세도가문의 핵심적인 권력기구 역할(07법/3-9회,5-3급)

④ 흥선대원군 : 비변사를 해체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킴(11-중)

2) 3사의 언론 기능도 변질

- ① 3사의 언론 기능도 변질되어 3사는 각 봉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하였다(15일경3차). 3사는 공론을 반영하기보다는 상대 세력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자기 세력의 유지와 상대 세력의 견제에 앞장서고 있었다.
- ② 이조와 병조의 전랑들도 중하급 관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자기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상대 세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다.

2. 군사제도

(1) 새로운 중앙군제 : 5군영(08지7,137|9)

① 훈련도감(선조, 1593.10)(12경간)

㉠ 임란 중,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참고하여 설치.

㉡ 삼수병으로 편성(포수, 살수, 사수 : 조총병 중심 군대)(10서9/3-3급) : 상비군 성격을 띤 모병(장번급료 병)(07국7,08지9,10서9).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 → 뒤에 삼수병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삼수미세를 신설하였다(1결당 2.2두).(07세9)

㉢ 의미/한계 : ㉠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의무병제의 붕괴(10서9) ㉡ 조선 후기 최대 군영이자, 서인 정권의 군사기반 역할 함(137|9/10-3급)

② 어영청(인조 2년/효종)

㉠ 인조대 어영군으로 탄생 : 서인정권의 친명배금 정책(서인정권은 적침시 국왕의 친정까지 계획), 이괄의 난(인조 2년)에 따른 친위군 강화 요청에 의해 설립

㉡ 효종대 북벌의 핵심군영이 됨 : 260여명의 소규모 부대로 발족 → 이괄의 난 이후 1,000여명으로 증가하며, 훈련도감과 함께 좌·우영으로 짝을 이룸 → 북벌의 중심군영이 되면서 크게 발전

㉢ 의미/한계 : ㉠ 단순히 군적수로는 조선 후기 최대군영이 됨 ㉡ 서인정권의 기반강화

③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이 설치되었고, 숙종 때에 금위영이 추가로 설치되어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15일경3차)

1. 중국관계의 변화

당시 지배세력은 임진왜란 때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입은 명에 대해서는 대명의리론을, 조선에 굴욕을 가하고 명을 멸절시킨 청에 대해서는 대청복수론을 견지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중화 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조선만이 중화문화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자부심으로 무장했다.

(1)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2) 대명의리론 강화(송명반청; 화이론적 세계관; 재조지은) : 청나라 인정 ×

①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 : 호란(胡亂) 발생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 대하여 표면상 사대 관계를 맺고 사신이 왕래하면서 교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북벌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② 북벌론 전개(12일경2차)

㉠ 효종은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였다.

㉡ 숙종 때에도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희를 중심으로 북벌 움직임이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③ 만동묘·대보단 설치(숙종)

④ 조선중화주의(청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 내세움)(12지9)

(3) 대청 관계의 변화 : '북학'의 대두(화이론적(성리학적) 세계관 탈피)

조선 사신에 의해서 변화하는 청의 사정이 전해지면서, 학자들 중에도 청을 무조건 배척하지만 말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북학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386
~
389

2. 일본관계의 변화

(1) 국교 재개

- ① 선조 :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으로 강화를 받아들이고 통신사를 파견(08지9,12일경2차/14회)
 - ㉠ 임진왜란으로 침략을 받은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에도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 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해 왔다.
 - ㉡ 회답겸 쇄환사 파견(통신사; 1607) :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대사)을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다(1607). (cf. 사명당 유정 파견(1604) → 국교 재개&통신사 파견(1607, 선조40))
 - ㉢ 기유약조 체결(광해군 원년, 1609)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동래부의 부산포에 다시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하였다(1609).

(2) 통신사 파견(선조40,1607~순조11,1811) : 12차례 파견

- ①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에도 막부의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 ② 비정기적 파견 : 조선에서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08국9/14회) 막부 장군이 바뀔 때 등 비정기 사절로 파견(08국9)

(부산~오사카는 해로로, 그 다음 에도까지는 육로로 이동, 국왕의 외교문서인 서계 지참, (12서7))
- ③ 영향 : 조선의 선진문화 일본에 전파(9-3급,14회) →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국학 운동이 일어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함(08국9).
- ④ 19c 초반 이후 통신사 파견 단절(순조11, 1811)(08지9,12서7) : 상호간의 필요성 상실로 인해 대마도 역지교빙(대마도에서 불일 보고 돌아옴)을 끝으로 중단됨

(3) 개항기

- ① 대원군 집권기(19c 후반) ‘서계문제’ 발생 : 일본이 새로이 교섭재개 요구하는 문서에 무례한 표현 사용(일왕을 황제로 표현, 신인(新印) 사용) → 대원군의 서계접수 거부 → 일본에서 정한론(征韓論) 대두 (1873)(08국9)
- ② 울릉도, 독도 :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 날개 부분 참고 추가

[참고] 통신사 파견

통신사 일행은 적을 때에는 300여 명, 많을 때에는 400~500명이나 되었고, 일본에서는 국빈으로 예우하였다. 일본은 이들을 통하여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 전세의변화 전체내용수정

2. 군역의 변화 : 군역법 실시(18c)(12경간/6-3급)

㉡ 날개 부분으로 내용추가

도고의 폐해 : 매점매석

근래 소민이 건디기 힘든 폐단은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물화를 모두 모아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으로, 백가지 물종이 다 한 곳으로 귀속되니, 다른 사람들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조실록>

407	㉠ 날개 부분으로 참고 사항 추가 설점수세제[물주덕대제]-은광 조정에서 은이 나는 곳에 은점 설치를 허가만 내주면 돈 많은 장사꾼은 각자 재물을 내어 일꾼을 모집할 것입니다. 땅이 없어 농사짓지 못하는 백성은 점민이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곳에 모여 살며 은을 캐어 호조와 각 영, 고을에 세를 바치고, 남은 대로 물주에게 돌릴 것입니다. 땅 없는 백성도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 나갈 수 있으니, 공사 간에 유익한 일입니다. 어찌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겠습니까? <경제야언>
408	㉠ 전체적인 내용추가 1. 중국과의 교역 ① 개시 성립(12X9) :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12회)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관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08X9/9-11-중). (의주의 중강과 봉황의 책문 등) ② 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이었고, 수출하는 물품은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이었다. 2. 일본과의 교역 ①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왜관 개시를 통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동래 왜관을 중심으로 개시, 후시가 행해짐) ② 조선은 인삼, 쌀, 무명 등을 팔고, 청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넘겨주는 중계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은,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였다. ③ 조선은 중국과 일본의 은과 비단 거래에 중계무역을 담당 : 중국산 비단(실크)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들어가고, 일본산 은은 한반도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었다(실크로드와 실버로드). 비단이 교역되는 데 은이 주로 교역수단으로 이용되었다. (* ‘인삼로드’ : 인삼은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였다.(4회)) 3. 사상의 활동 ① 사무역 발달 : 이러한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사무역이 공무역을 압도). ② 이들 중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은 의주의 만상(청과 교역)과 동래의 내상(일본과 교역)이었으며, 개성의 송상은 양자를 중계하여 큰 이익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421	㉠ 내용 추가 [조선성리학 성립] • 16세기 사림은 도덕성과 수신을 중시하였으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인간 심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서경덕과 이언적은 각각 조선 성리학의 이기론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각주 추가 • 16세기 중반부터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학설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① 서경덕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② 역시 노장 사상에 포용적이었던 조식은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서경덕과 조식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학문 경향은 16세기 중반 이후 하나의 중요한 사상적 조류를 형성하였다. ③ 이언적은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④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은 이황과 이이였다.
423	㉠ 정리 추가 (2) 우계 성혼(1535~1598) ① 우계 성혼은 퇴계의 학설을 일부 수용하는 절충적 입장을 가졌으며, 그의 학문은 이이, 송익필 중심의 학맥

	과 구별되는 우계학과로 이어졌다. ② 소론으로 계승 : 성혼의 학문은 사위인 윤희, 윤희의 아들인 윤선거와 그 아들인 윤증 부자로 이어졌다. 그와 더불어 박세채, 박세당 등 소론계 학자들은 주자학에 철저한 노론계 학자들에 비하여 좀 더 탄력적인 학풍을 지녔다. 따라서 후에 박세채와 윤증의 문인이며 양명학의 대가인 정제두 같은 학자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425	㉮ 내용수정 및 추가 ㉮ 17c 사상계의 특징 1. 성리학의 절대화 및 형식화(07법) 호란을 경험하고 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의 서울 집권층의 분위기는 반청성명의 북벌운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운동은 조선이 중화문화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조선중화주의와 주자성리학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1) 대명의리론 강화(화이론 강화 ; 친명배금정책, 존화주의) ① 반청의식 강화 ㉮ 북벌론의 강화 : 대명의리에 따른 복수설치(復讐雪恥) 의식 ① 조선중화주의(17c 이후 이어짐) :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우리가 중화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소중화의식, 조선중화주의가 강화되어 갔다(조선이 중화 계승하는 적통)(10지7/3-1급).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반청의식(12경간). ② 대명의리론 실천(18c초)(12경간) ㉮ 만동묘(화양동 서원, 충북 괴산) : 송시열의 유지로 건립, 명나라 신종·의종 제사(09국9) ① 대보단 건립(숙종) : 창덕궁 내 설치. 명의 태조, 신종·의종, 임란 당시의 장군들 배향 (2) 주자 성리학 절대화 ♣ 송시열 : 주자의 성리학만을 절대적으로 신봉. ① 인조반정 이후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하였다. ② 예학 발달(07법) : 서인 김장생 《가례집람》, 동인 정구 《오선생예설분류》 등 각각 예론을 집대성 ③ 서인(노론; 송시열)은 윤후, 박세당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음 : 윤후는 사형당하고, 박세당은 유배갔다가 그 후유증으로 죽음(4회,9회)
427	㉮ 내용추가 및 수정 1. 인물성 동이(同異) 논쟁[호락논쟁](07국9,08법,08지7,09국9/1-3급) ※ 송시열 사후 논쟁 18세기 이이 학파를 계승한 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호락논쟁을 벌였다. 이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충청도 노론(호론)과, 같다고 보는 서울·경기 노론(낙론)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참고] 인물성 동·이론 (다찾우 389p) • 인물성이론이 이기합일론을 따른 것이라면, 인물성동론은 기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인물성동론에는 만물의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양명학·노장사상의 영향이 깊게 배어 있었다. • 호론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면서 이것을 화이론으로 연결시키고, 서울 낙론은 사람과 모든 우주만물의 본성이 같다고 보면서 만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만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후생에 끌어들이는 자연과학정신이 담겨 있었다. ※ 낙론의 이론이 모두 북학으로만 발전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항로(경기 양평 출신), 기정진(전북 순창 출신) 등은 이일원론(理一元論)으로 발전하여 영남학과와 마찬가지로 위정척사운동의 철학적 배경을 이루기도 하였다.

㉠ 내용 및 표 수정

① 중농적 개혁론 : 근기남인[근경남인] 계열(3~2급)

- 호란 후 주자성리학이 서울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가운데서도, 서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서울 부근 100리 권의 농촌에서 생활하던 근경남인(近京南人)은 초기 실학자들의 사상을 꾸준히 계승·발전시키면서 야당의 학풍을 형성했다. 이들은 서울 서인들의 정책을 농촌지식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비판했다. 허목(경기도 연천 출신), 유형원(서울 출신으로 전라도 부안에 내려가 일생 보냄), 이익(경기도 안산) 등이 17c 후반~18c 초의 저명한 남인 실학자들이었다.
- 남인 실학자들은 17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봉당정치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인 군주가 주도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중국의 삼대(하·은·주)와 같은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으며, 우리나라 상고시대에도 이상사회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1) 미수 허목(1595~숙종, 1682) : 《기언(記言)》, 임제의 외손자.

허목은 《기언》을 써서, 봉당정치와 북벌정책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왕과 육조의 기능 강화, 중농정책 강화, 사상의 난전 금지, 부세의 완화, 호포제 실시 반대, 서얼허통의 방지 등을 주장했다. 이는 농촌의 자급자족 경제와 재야 선비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2) 반계 유형원(광해군, 1622 ~ 현종, 1673; 17c 후반 활약) : 《반계수록》(10서7, 12일경2차3차)

428

① 반계수록 저술	• 광해군 복위를 도모하다 죽은 유희의 아들 • 농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는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유형원으로, 일생 동안 농촌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반계수룩을 저술하였다. (07법) - 이 책에서 유형원은 균전론을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양반 문벌 제도, 과거 제도, 노비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 이 책은 생전에는 공간되지 못하다가, 영조대 왕명으로 편찬됨. → 이후 실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침
② 토지, 수취개혁	• 균전론(均田論)(09지7, 15일경1차/4회) : 공전제와 과전제를 바탕으로 한 토지재분배 필요하다 주장. 유형원은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 사·농·공·상 모두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것(12일경3차, 15일경1차/9~3급)으로 모든 국민을 자영농으로 안정시키자는 것 - 자영농을 바탕으로 병농일치의 국방체제를 수립 : 이를 통해 조세와 병역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봄(10법). • 결부법 대신에 경무법 사용 : 종래 수확량을 단위로 토지를 계산하는 결부법 대신에 면적을 단위로 토지를 계산하는 경무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16일경2차) • 호구에 부과하던 역역을 토지에 일괄 부과해 민생안정과 국가재정 확립
③ 신분제도	• 양반 문벌 제도, 과거 제도, 노비 제도의 모순을 비판(7~3급) - cf. 한계 : 양반제도 인정, 노비제도 폐지 주장은 ×(완전한 신분제 철폐 주장은 ×) • 사농일치의 교육제도를 마련

㉠ 내용 및 표 수정

(3) 성호(星湖) 이익(숙종, 1681~영조, 1763)

429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이었다. 그는 유형원의 실학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 내 학파를 형성하였다.

행장	- 유형원과 내외중 형제로서 그를 몹시 흠모했던 이익은 북인에서 전향한 남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둘째 형 이잠이 당쟁으로 희생되는 것을 보고 벼슬을 단념하고 광주 점성촌(현 경기도 안산)에서 일평생 학문에 전념하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당쟁의 피해를 빠져리게 겪음). - 아버지 : 1680년 경신환국으로 유배·사망(이익 유배지서 출생) - 둘째 형(이익에 학문적 영향 가장 크게 줌) : 1705년 장희빈 두둔 상소 올렸다 역적 몰려 처형 → 봉당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도 이들 경험 탓일 것 - 아버지가 중국사행시 가져온 탓에 집안에 전래하는 책이 수천권이나 됐다고 함 - 율곡과 유형원을 최고의 학자로 꼽음(특히 유형원에게 큰 영향). - 이익의 학문과 사상은 기본적으로 6경고학에 토대를 두고 있었으나, 한당유학이나 천주교·민간 신앙·민속 등에도 관심을 가져, 학문과 사상의 폭이 매우 넓었다. 《성호사설》 : 40세 전후부터의 기록을 80세때 집안 조카들이 정리해 편찬(영조). - 성호사설과 광우록이 그의 개혁사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토지, 수취	- 한전론(限田論) 실시 주장(07세9,08지7,09지7,10국7/4·9회,9-3급) :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매호마다 영업전(永業田)을 갖게 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균등을 이루도록 하자고 주장.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 개혁론. - 이익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최소한도의 의무적 토지 보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고 주장하였다(영업전 외의 토지는 자유로운 매매 허용).(10법,12서7,12일경2차3차,13일경1차,15일경1차/4회,9-3급) → 농가에서 대대로 농사지를 수 있는 토지를 주고 이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 - 농가경제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고리대, 화폐제도, 환곡의 개선책을 주장
개혁론 (농업 중심 개혁)	- 상공업 발전에 부정적 : 유통경제의 발전이 농촌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음을 우려 - 폐전론 주장(동전 폐지론)(08지7,12국7,13일경1차) 6촌론 :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악폐로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문벌제도, 기교[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들었다.(10법,10국7,11지9,15일경1차,16일경2차) - 신분제도 : 노비제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제도자체에 대한 폐지까지는 이르지 × → 신분제 문제 불철저한 한계
봉당 원인	- 선비들의 이권 다툼 :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많은 데서 봉당이 생긴다고 봄(10국7,13일경1차). - 해결책 - 선비들도 농사지어 생리(生理 : 생업)를 가질 것 - 과거시험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합격자를 줄일 것, 천거제도를 병행하여 재야인사를 등용할 것, 이조·병조의 전랑들이 가진 후임자 천거권(낭천권)과 청직[3사]으로의 승진을 막을 것 - 군주와 재상의 권한을 높이고, 특히 군주가 친병을 거느려야 한다고 주장 → 영·정조의 탕평책과 왕권강화는 이런 주장들이 반영된 것이다.

㉮ 내용 및 표 수정

2 중상적 개혁론 : 북학파(8회)

-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가 나타났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 북학의 핵심은 이용후생에 필요한 상업과 기술문화에 있었다. 이 점에서 농촌 문제에 집착한 근경남인의 실학과 달랐다.
- 북학은 19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지다가 1876년 개항 이후에는 개화사상으로 계승되었다.

상업 중심 개혁	• 상공업의 진흥을 통해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자는 것 - 상업에 있어서는 상인 간의 합자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하여 생산과 판매를 주관할 것을 주장했다.(→ 상업자본의 육성) - 대상인이 학교와 교량을 건설하고, 방위시설을 구축하여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것을 제안했다.(→ 대상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 cf. 사상과 도교에 대해서는 비판적 : 물자의 낭비와 가격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활동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	• 농업에서는 무리한 토지제도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자고 하였다.(9-3급)
사회	• 무위도식하면서 문벌에 끼려고 애쓰는 양반들을 농·공·상으로 전업시키고, 사·농·공·상을 평등한 직업으로 만들어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 사료 추가

유수원의 상공업 진흥론

지금 양반이 명분상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만 그들의 비루한 행동은 상공업자보다 심한 자가 많다. 학문이 없어도 세력만 있으면 부정하게 과거에 합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바라거나 공물의 방납과 고리대를 하거나 노비를 빼앗기 위한 소송이나 벌임으로서 생활을 영위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수령자리를 얻어 토색질이나 한다.

상공업은 말업이라 하지만 본래 비루하거나 부정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재간없고 덕망없음을 안 사람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품 교역에 종사하며, 남에게서 얻지 않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데 그것이 어찌 천하거나 더러운 일이겠는가?(2-3급) 유수원, <우서>

㉠ 내용 및 표 수정

432

(2) 담헌 홍대용(영조1731~정조1783) : 《의산문답》, 《임하경륜》 등

북학파의 실학사상은 18세기 후반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홍대용은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기술의 혁신과 문벌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435

㉠ 내용 추가

5) 이덕무 : 《청장관전서》(→ 손자 이규경에 영향 줌)

정종의 후손으로 역시 서출이었으나 정조의 사랑을 받아 규장각 검서관이 되고,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청나라의 각종 문물을 소개했으며, 특히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고증학 발달에 기여했다.

435

㉠ 내용 추가

3. 양명학의 변화 : 소론 계열(3-2급)

(1) 전래 및 발전

1) 16c 중종대 전래 : 왕양명의 《전습록》 전래 ↔ 이황 《전습록변》 지어 비판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중종 때에 조선에 전래되었다. 학자들 사이에 관심을 끌어가던 양명학은 이황이 정통 주자학 사상과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2) 17c 계승 : 최명길, 장유 등이 대표적 학자. 학문보다는 마음수행 차원에서 이해

	3) 18c 강화학파 형성(정제두)^(14경간,9회) : 경기도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달 ① 18세기 초반에 정제두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11지7) : 존연(양명학의 기본학설 요약(3-2급)), 만물일체설 ② 그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으며,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③ 강화 학파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역사학, 국어학, 서화, 문학 등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갔으며, 실학자들과도 영향을 주고받았다^(11지7). ④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과 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계승되었다. ex. 이광사, 이공익, 이견창 등이 대표적
444	㉠ 내용 수정 및 추가 ■ 조선초의 역사인식과 편찬서적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밝히고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서의 편찬에 힘썼다. 조선 시대에는 실록의 편찬을 매우 중요시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 《고려국사》(태조; 정도전 등) : 재상중심, 편년체. 고려사에 대한 대강을 정리 태조 때 정도전은 고려국사를 편찬하여 고려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 하였다. (2) 《고려사》(세종 착수 ~ 문종 편찬) : 고려시대 역사 정리^(08법/7-3급) 고려 시대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하는 작업은 계속되어 15세기 중엽에 기전체의 고려사와 편년체의 고려사절요가 완성되었다. (2) 《동국통감》(성종)^(08국7/10-3급) : 우리 역사 통사체계 처음 확립됨^(09국9)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성종 때에 동국통감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서거정 등이 편찬하였다.
447	3)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 :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이들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2-3급,14회). (3) 순암 안정복(1712~1791) 이익은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서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익의 제자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하였다.
452	㉠ 참고 추가 [참고] 조선후기 역사지리 인식 조선 후기 역사지리 인식의 흐름은 역사지리학과 여부 및 당색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고대사를 남과 북의 이원적 체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여기에 남과 북의 경계를 한강으로 하는가 혹은 보다 북쪽에 두는가, 북쪽의 영역에 만주가 포함되는가 혹은 한반도에만 국한하는가의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서인 소론계가 우리 영토를 보다 북방으로 확장해 보려는 견해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입장을 취하든 우리 고대사를 지리적 관점에 토대하여 남과 북의 이원체제로 보려는 생각은 명분론적 역사인식을 벗어나는데 기여하였다.
455	㉠ 내용수정 및 추가 ■ 윤리, 의례서 1. 삼강행실도(세종; 설순) ^(2-1급, 4회, 6회) 세종 때에는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조선시대 가장 많이 간행되고, 언해까지 이뤄졌다. → 서민사회에까지 유교적 규범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다. 2. 국조오례의(성종)(10서9) ① 성종 때에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하여 의례서인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 왕명에 따라 신숙주 등이 국가 왕실행사에 대한 의식 절차를 규범화해 편찬한 것이다.(10서9) ② 제사 의식인 길례, 관례와 혼례 등의 가례, 사신 접대 의례인 빈례, 군사 의식에 해당하는 군례, 상례 의식인 흉례의 오례를 정리한 책이다. 3. 이륜행실도 16세기에는 사림이 소학과 주자가례의 보급과 실천에 힘쓰면서 이륜행실도와 동몽수지 등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이륜행실도는 연장자와 연소자(장유), 친구 사이(붕우)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한 책이며, 동몽수지는 어린이가 지켜야 할 예절을 기록한 윤리서였다.
457	㉮ 내용수정 및 추가 2. 《승정원일기》(13경간) (1) 과정 : 승정원에서 기록·편찬(8-3급). 승정원의 주서(注書)는 왕과 신하 간에 오고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승정원일기를 작성하였다.(13경간,13지7) (♣ 승정원의 주서와 춘추관의 사관이 국왕의 매일 일과를 기록하여 각각 승정원일기, 사초(史草)를 기록하고 남겼다. 둘 다 왕조실록의 편찬 자료가 되었다.
459	㉮ 내용수정 및 추가 2. 조선후기 (2) 실학적 농서 편찬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고 농업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곡물 재배법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 원예, 양잠, 축산 등의 농업 기술을 소개하는 농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① 박세당은 색경을(최초의 실학적 농서), 홍만선은 산림경제를, 서호수는 해동농서(→ 아들 서유구에 영향)를 저술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② 19세기에 서유구는 농업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종합하여 임원경제지라는 농촌생활 백과사전을 편찬하였다.
459	㉮ 내용추가 4. 동의수세보원(고종, 이제마; 1894) : 사상의학 수립. 19세기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이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체질 의학 이론으로, 오늘날까지도 한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459	㉮ 내용수정 및 추가 1. 조선전기 ① 조선 정부는 한글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왕실 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간지곡 등을 지어 한글로 간행하였다(세종). ③ 불경, 농서, 윤리서, 병서 등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편찬하였다. ④ 서리들이 한글을 배워 행정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채용에 훈민정음을 시험으로 치르게 하기도 하였다.
461	[시대개관] 조선후기 문화의 특징(13경간) (1)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문화면에서 새 기운이 나타났다. 서당 교육

	이 보급되고, 서민의 경제적·신분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대두하였다. 양반층 외에도 중인층과 서민층 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① 서민문화 발달(08국9,12경북9,13경간,13기9/2·7회,4·8·9·11-중) : 풍속화/민화, 한글소설 간행·판매, 사설시조, 판소리, 탈춤·가면극(산대놀이) 등 유행 ㉠ 회화에서는 그 저변이 확대되어 풍속화와 민화가 유행하였다. ㉡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의 보급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 춤과 노래 및 사설로 서민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한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 문화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음악과 무용에서는 감정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짙었다. ② 중인들의 문화도 발달 : 시사조직·시집편찬, 중인들의 역사서 편찬 등 양반 아류적인 문화 발달 (2) 독자적인 문화 형성(≠서민문화)(2-1급,8-3급) : 독자적인 우리 고유의 것을 찾는 경향이 나타났다.(3-1급) - 진경산수화(08국9,13경간), 추사체(12경북9) (3) 서양화풍 영향 : 강세황(영통골입구도), 김홍도(용주사 탕화, 기록화), 기록화(동궐도 등)
461	㉤ 날개부분 추가 [참고]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 교양이나 심성 수련이 목표였던 조선 전기의 문예가 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조선 후기의 문예는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런 경향은 자연히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경향을 띠었다.
462	㉤ 내용수정 및 추가 ❶ 회화 1. 조선전기 (1) 15c 15세기 그림은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의 그림과 관료이자 문인인 선비의 그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중국 역대 화풍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소화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발하였다. 조선의 이런 그림은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으로는 안견, 최경이 가장 유명하고, 문인 화가로는 강희안, 강희맹 등이 유명하였다. ① 문인화 : 강희안 고사관수도(3·14-중).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자연 속에 파묻혀 깊은 사색(무념무상)에 잠긴 선비의 내면세계를 표현(10국9/8회). (※ 강희안은 강희맹 형) ② 화원화 : 안견 몽유도원도(11회). - 안견은 중국과 우리 나라의 역대 화풍을 깊이 연구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모습을 화원 안견이 듣고 그림(8-3급). 현재 일본 소재(9회) (※ 안평대군 : 세종의 3子, 수양대군(세조) 친동생. 수양대군이 제거) ③ 신숙주는 화기(畵記)를 써서 안평 대군의 소장품을 소개하였다.
463	2. 조선 후기 조선 후기 그림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새 경향은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의 유행이었고, 서예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담은 글씨의 등장이었다. (1) 17c : 김명국 달마도 (2) 18c ① 진경 산수화(07국9/2·3급,6-3급) : 정선이 개척(14-중) ㉠ 진경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다.(11기9/14-중)

	㉠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16일경2차/6-3급) ㉡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세기에 활약한 정선이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 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② 풍속화(07세9/2-3급, 6·7·8·11-중) 정선의 뒤를 이어 산수화와 풍속화에 새 경지를 열어 놓은 화가는 김홍도였다. 그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 김홍도(11회) : 정조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궁정화가의 중심인물이 됨. ㉡ 정조의 화성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등 궁중 풍속을 많이 그림 : 이는 기록화의 의미를 지닌 까닭에 활달하고 간결한 필치보다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를 더 필요로 했다(16일경2차). 김홍도의 기록화에는 서양식 화법이 보인다(원근법, 등장 인물 모두 측면으로 그림). ㉢ 사대부들의 감상을 위한 그림도 많이 그렸다. ㉣ 신선이나 산수도 즐겨 그렸다. 김홍도의 산수화는 실경산수로서 객관적 기록화의 정신이 담긴 것이다. ㉤ 서민들의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8회, 6-3급) : 밭갈이, 추수, 씨름, 서당 등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하였다. ㉠ 신윤복 : 주로 도시인의 풍류생활, 양반과 부녀자의 생활과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인 필치로 묘사하였다(16일경2차/6-3급). ㉡ 김득신 : 김홍도와 비슷한 화풍을 지닌 풍속화가로서 김득신, 김석신 형제도 정조의 궁정화가로 활약하고 사대부들의 사랑을 받았다. ㉢ 서양화풍 유입(09지9) : 강세황 <영통골입구도>(음영, 원근감 표현) 강세황은 서양화 기법을 반영하여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강세황은 시·서·화의 삼절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 그는 서양 수채화의 기법을 동양화와 접목시켜 새로운 산수화풍을 성립시켰다.
465	㉡ 내용수정 및 추가 2 서화(서체) 1. 조선전기 서예는 그림과 달라서 문인, 학자라면 누구나 터득해야 할 필수적인 교양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저명한 학자들은 모두 글씨로써 일가를 이루었는데, 독특한 서체를 개발한 이도 적지 않았다. 대체로 그 필법은 중국 명필가의 영향을 받았다. ㉠ 안평대군 : 조맹부체의 글씨를 개성 있게 발전시켜 이름을 떨쳤다. ㉡ 양사언과 한호(한석봉; 1543~1605) : 왕희지체를 특기로 하면서, 각각 초서와 해서에 능하여 명필로 이름이 높았다. 2. 조선후기 : 독자적인 서체의 발달 ㉠ 동국진체(이광사) : 우리의 정서와 개성을 추구하는 단아한 글씨의 동국진체가 이광사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 추사체 창안(김정희) : 김정희는 우리 서예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금의 필법을 두루 연구하여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추사체를 창안하여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465	㉡ 내용수정 및 추가 3 공예 1. 15c(12경간) : 분청사기 유행(11지9/2·8·9·15-중) (1) 분청사기 : 관청과 지배층에서 사용(12경간) ㉠ 고려 말에 나타난 분청사기는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11지9/12-중, 14회), 안정된 그릇 모양과 소박하

	고 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맛을 잘 나타내고 있다. (10지7, 15 일경3차) 고려 상감기법을 이었다. ② 퇴조 : 분청사기는 16세기부터 세련된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점차 그 생산이 줄어들어 퇴조하였다. (4-3급) (2) 분청사기와 옹기그릇은 전국의 자기소와 도기소에서 만들어져 관수용이나 민간용으로 보급되었다. 특히 관요가 있었던 광주 분원의 것이 유명하였다.
466	3. 조선후기 (1) 청화백자 유행^(117)9, 12경간/3-1급, 7·12·15-중) ①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② 청화백자 유행 : 제기와 문방구 등 생활용품이 제작되었다. (07세9/3-1급) ③ 회회청(回回靑) 안료의 국산화(정조) (2) 기타 ① 목공예 발달 : 조선후기에는 목공예가 크게 발전하여 장롱, 책상, 문갑, 소반, 의자, 필통 등이 많이 생산되었다. (07세9) ② 화각 공예도 독특한 우리의 맛을 풍기는 작품이 많았다.
466	㉠ 내용수정 및 추가 1. 조선초 문학의 특징(14·15세기) (1) 태조 : 정도전은 고려 말에 가난한 백성들을 동정하는 많은 글을 쓰고, 개국 후에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문덕곡》과 도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신도가新都歌》 등 가곡을 많이 지어 궁중에서 연주되었다. (다찾사p310) (3) 세조 ① 월인석보 :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친 것 ② 금오신화(세조~성종 즈음) : 평양, 개성, 경주 등 유서 깊은 고도를 배경으로 펼쳐진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불의를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 속에 전승되어 온 고유의 생활감정과 낭만적인 역사의식이 묘사되어 있다. (다찾사p311) (4) 성종 ① 동문선(성종, 서거정)(15경간) : 자주성, 불교관련 글 수용 ② 서거정은 《동인시화》(성종 5년, 1474), 《필원잡기》(성종 17년)를 발간 (5) 15c 대표문학 : 설화문학 유행 조선초기 문학에서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잡기(雜記) 혹은 패설(稗說)로 불리는 작품이 많이 창작된 것이다. 일정한 격식이 없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한 패설작품이다. → 이 책들에 실린 내용은 위로는 조정관인의 기행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평민이나 노비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사람들의 생활풍속과 생활감정, 그리고 역사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많으며, 불의를 폭로하고 풍자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따라서 패설은 모두 관인들이 쓴 것이면서도 당시 서민사회와 서민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다찾사p310) ① 《필원잡기》와 《용재총화》 편찬(07국9) : 《필원잡기》는 조선초 서거정이 지은 한문 수필집, 《용재총화》는 조선초 성현이 지은 잡록이다(기록은 많지 않으나 분량이 다양하여 ‘총화’라는 이름을 붙임). ② 그 외 : 남효온의 추강냉화, 강희맹 촌담해이, 이육 청파극담, 조신 수문쇄록 등이 있다. (다찾사p310) 2. 16c 문학의 특징 ① 가사문학 등장(12경북9) : 송순, 정철, 박인로 등이 뛰어났는데, 특히 정철은 풍부한 우리말의 어휘를 마음껏 구사하여 관동별곡, 사미인곡과 같은 걸작을 남겼다. (6차 국사) ② 여류시인 등장(황진이, 허난설헌 등)

	③ 어숙권이 패관잡기를 지어 문벌 제도와 적서 차별의 폐단을 지적하였으며, 임제는 풍자적이고 우의적인 시와 산문을 써서 당시 사회의 모순과 유학자들의 사대 사상을 비판하였다. (6차 국사)
466	㉠ 참고 추가 [참고] 국초 문학의 특징 • 특징 : 왕조 건국 찬양, 자주적 태도 • 유형 : 악장 문학(최초 한글문학), 설화문학 유행, 한문소설 등장(금오신화)
467	㉠ 사료 추가 음악의 기능 악(樂)은 하늘이 내어 사람에게 보낸 것이니, 허(虛)에서 나와 자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맥박을 뛰게 하여 정신을 막힘없이 흐르게 한다. …… 다른 소리를 합하여 하나로 하는 것은 임금의 위에서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 있다. 바르게 이끄는 것과 거짓되게 이끄는 것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나며, 풍속이 번영하고 쇠퇴하는 것도 모두 여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악이야말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큰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악학궤범>
467	㉠ 내용수정 및 추가 제4절 음악/탈춤/산대 1. 조선전기 조선 시대에는 음악을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여겼고, 국가의 각종 의례와 밀접히 관련되었기 때문에 중요시하였다. (3-1급) (1) 세종 ① 박연에게 악기를 개량하거나 만들게 하였고, 스스로 여민락 등 악곡을 짓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② 아울러 악곡과 악보를 정리하게 하고 아악을 체계화함으로써 아악이 궁중 음악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2) 성종 : 성현 악학궤범 편찬. 이 책은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무용, 의상 및 소도구까지 망라하여 정리함으로써 전통 음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3)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민간에서도 당악과 향악을 속악으로 발달시켜 가사, 시조, 가곡 등 우리말로 된 노래를 연주하는 음악이나 민요에 활용하였다. (4) 춤 : 처용무처럼 전통춤을 우아하게 변용시킨 것도 있었다. 민간에서는 농악무, 무당춤, 승무 등 전통춤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며, 산대놀이라는 탈춤과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도 유행하였다. 2. 조선후기 서민문화 발달. 오늘날 대표적 한국 전통음악인 판소리와 산조 등이 발전. (3-1급) 춤과 노래 및 사설로 서민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한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 문화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 상업의 성황으로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이 판소리, 산조와 잡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15일경3차). 이 시기의 음악은 전반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였다.
468	제1절 천문과학 1. 조선전기 (1) 천문관측 ① 천체 관측 기구로 혼의와 간의를 제작하고, 시간 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었다. ② 자격루는 노비 출신의 과학 기술자인 장영실이 제작한 것으로, 정밀 기계장치와 자동 시보장치를 갖춘 뛰

	어난 물시게였다. (2) 천문도/역법 ① 각석 천상열차분야지도(태조) :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07국7, 10국7/9회, 14회) (♣ 세종 때에도 새로운 천문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② 칠정산 내편(세종) :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 마련(6·9회)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2. 역법/역서 : 시헌력의 채택(효종)(12회, 5-3급) 서양인 선교사 아담살이 편찬(9회)하여 청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선 후기 효종대 김육의 노력으로 조선의 역법으로 채택되었다. 제2절 인쇄기술 1. 태종 : 주자소 설치, 계미자 주조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2. 세종 : 갑인자 주조, 밀랍 대신 식자판 조립방식 개발. ① 세종 때에는 역시 구리로 갑인자를 주조하였는데, 이는 글자 모습이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② 종전에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렸다. 3. 제지술 발달 종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관청으로서 조지서를 설치하고 다양한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하였다.
469	㉠ 내용추가 제3절 서양 과학기술의 전래 : 조선 후기 과학발달에 영향 당시 명·청의 수도인 베이징에는 서양 선교사가 있었는데, 조선의 사신은 이 곳에서 이들과 접촉하여 서양 문물을 소개받았다. 1. 국내인의 전래 (1) 서양 문물은 17세기경부터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을 통해서 들어왔다. 선조 때 이광정은 세계 지도를 전하고, 인조 때 정두원은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을 전하였다. (2) 서양 문물의 수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익과 그의 제자들 및 북학파 실학자들이었다. 이익의 제자 중에서 일부는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까지 수용한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자는 서양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이면서도 천주교는 배척하였다. (3) 천문학 ① 이익은 서양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김석문은 지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여 우주관을 크게 전환시켰다. 홍대용은 과학 연구에 힘썼으며, 김석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② 지전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천문학은 전통적 우주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우주관으로 접근해 갔다. 2. 서양인의 활동 17세기에는 벨테브레이와 하멜 일행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다. 벨테브레이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쳐 주었고, 하멜 일행은 네덜란드로 돌아가 <하멜표류기>를 지어 조선의 사정을 서양에 전하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개정2판 추록 (근현대)

11

1. 동학의 성립(1860, 경주) : 제1대 교주 최제우 cf. 임술민란(1860) 이전 이미 등장
 - ① 1860년 경주에서 몰락 양반 최제우(유학출신)가 구세제민의 뜻을 품고 창시하였다(6회, 10-3급).
 - ② 평등사상 : 동학은 사람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14일경1차)
 - ③ 교리에 주문과 부적 등 민간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14일경1차)
 - ④ 최제우 처형(1864) : 흑세무민을 이유로 최제우가 붙잡혀 처형당하였다.
2. 동학 교세의 확장 : 제2대 교주 최시형
 - ① 최시형에 의해 교리가 정리되고 교단이 정비되면서 교세 확장(10-3급) : 최시형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교단조직을 정비하면서 교세를 확대하였다.(14일경1차)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 cf. 《동경대전》(한문 경전), 《용담유사》(한글가사 교리집) 등 편찬해 전파(10-3급) : 교조인 최제우 <수덕문>, <안심가>, <논학문> 등이 실려 있음(08국9).
 - ② 최시형은 이필재의 난(1871, 영해의 난)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후, 민란 등의 참여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92

1. (애국)계몽운동
 - (1) 헌정연구회(1905.5; '을사조약' 이전 설립) : 윤효정, 이준
 - ① 공진회 해산 후 윤효정과 이준은 보부상 단체와 결별한 후 다시 헌정연구회 조직
 - ② 입헌군주제 주장. 《헌정요의》라는 소책자 저술.
- 사료

“제왕이나 정부라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며 또한 국민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세계의 대세인 입헌체제를 갖추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정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 ③ '보호조약' 청원을 하는 일진회와 대립, 을사조약 반대하다 해산 → 대한자강회로 계승
 - (2) 대한자강회 설립(1906.3~1907.8; '을사조약' 이후 설립)(11법/8-3급) : 장지연·윤효정(10지7), 오가키 타케오(일본인 고문) 등
 - ① 헌정연구회를 모체로 하면서, 기독교청년회·국민교육회와도 일정하게 관련하고 있었고, 황성신문·제국신문 등 언론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 ② 국권 회복을 목표로 교육과 식산활동을 전개(10지7, 11지7) : <대한자강회 취지서> 발표
 - ㉠ 자강(自強)을 주장 : 자강의 방법으로 교육개발과 식산흥업 등을 강조(11법, 11지7)
 - ㉡ 계몽활동 :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의 간행(《대한자강회월보》)(13법)과 강연회를 개최하였다.(11법)
 - ③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8회) cf. 주도한 것은 아님
 - ④ 정미7조약(1907.7) 이후 해산
 - (3) 언론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한글보급에 크게 기여한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을 주도하였다. 이 밖에, 한글신문인 제국신문, 국·한문 일간지인 천도교의 만세보 등도 국권회복 운동을 지원하고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 ① 대한매일신보 :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친서 게재(11국9)
 - ② 황성신문(5회/9-3급) :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사설 실림(1905.11.20.)(11국9/9회, 5·12-중)
 - ③ 만세보 창간(1906.6~1907.6) : 사장 오세창, 주필 이인직
 - ㉠ 천도교 기관지, 국·한문 일간지.
 - ㉡ 국채보상운동 참여

- ㉔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누> 연재(1906.7.22.~10.10), <귀의성> 연재(1906.10.10~1907.5.31)
- ㉕ 재정난으로 자진 폐간(1907.6.30; 정미7조약 이전). cf. 만세보는 창간 이듬 해 이인직이 인수하여 친 일신문인 대한신문으로 개편되었다(1907.7.18; 친일 이완용 내각이 기관지로 발간).
- ㉖ 경향신문 창간(1906.10.19.) : 천주교 기관지. 순 국문의 주간지.

2. 을사의병(중기의병) : 을사조약·외교권 박탈을 계기로 거병(07국9,09법)

♣ 을사조약 체결 전 : 원주 원용팔(元容八; 원용석) 의병(1905.8)이 대표적이다. 9월에는 원용팔 의병이 해체된 후 동지 정운경이 단양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1) 최익현 거병(1906.6, 전북 태인(11-중))(8-3급)

- ① 을사조약 후 <창토5적소>, <창의토적소>, <포고팔도사민>(10국7) 등 발표. 1906년 3월 임병찬(林秉瓚)을 만나 구체적인 거사계획 수립. → 74세의 고령으로 태인 무성서원에서 거병
- ② 전북 태인, 순창에서 활동.
- ③ 정부에서 진위대를 파견하자, 동족끼리 싸울 수 없다 하여 거병 10여일 만에 한차례 전투 없이 해산·체포되었다.(07국9)
- ④ 결과 및 영향
 - ㉑ 임병찬과 함께 대마도 유배(2-1급)
 - ㉒ 호남지역과 의병의 전국적 파급에 상당한 영향

(2) 평민의병장 처음 등장(07국9/8-3급,14회) : 신돌석 의병(신태호)(09법,11자9/9:13-중)

- ① 1906년 4월 영해(영덕), 평해(울진) 등 일월산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했고(10법), 강원도와 경상도의 접경지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07국9).
- ② 정미의병 단계까지 활동하다, 일본에 매수된 부하에 의해 사망(1908)

(3) 지역별 활동 인물

- ① 영남지방 : 신돌석 의병, 중추원 의관 정환직·정용기 부자(산남, 영천; 고종의 밀지를 받고 활동)
- ② 호남지방 : 전북 태인 최익현 의병, 전남 담양 고광순 의병 등
- ③ 호서지방 : 민중식 등은 1천여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을 점령하였다(07국9). cf. 호서지방은 의병항전 전 시기에 걸쳐 항일전이 시종일관 활발(충북 제천·단양·충주 일대, 충남 홍성 일대).

(4) 을사의병의 성격 : 과도기적 성격

- ① 신분층이 저변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 : 평민의병장의 등장. 대한제국 농민운동(광무농민운동)의 주역들이 다수 참여.
- ② 척사보다는 국가의식이 보다 성장(계급문제보다 민족문제 보다 중시) : 이른바 ‘복수보형’(復讐保形)의 논리 보다는 구국의 노선적 지향이 보다 강화되었다.
- ③ 관료출신 인사(민중식, 정환직, 최익현 등)의 증가 : 여전히 유생의병장이 많으나, 이전에 비해 관료출신 의병장이 증가하였다.

㉙ “8도의 사민에게 고함” → (삭제 : 옆 날개로 이동시킴)

3. 의사·열사의 활동

- ① 을사조약 체결 전(3-2급) : 주영 대리공사 이한웅 음독자살(1905.5). 대한제국 정부는 그의 절의를 특별히 기리어 장충단에 배향하게 하였다.(3-2급)
- ② 을사조약 체결 이후 : 시종무관장 민영환(9-3급), 전 좌의정 조병세, 전 대사헌 송병선 등은 을사조약의 파기 상소를 올리고 이내 자결하여 국민들의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고종은 민영환에게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 ③ 나철[나인영]과 오기호 : 오적암살단 조직하여(5회,8:9-11-중) ‘을사조약’ 체결 대신들과 일진회 등 매국노들을

	처단하고자 하였다.
93	(1) '을사조약' 이전 밀사외교의 전개 ① 이승만·윤병구 파견해 루즈벨트 면담(1905.8) : 러일간의 강화담판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 중재로 미국 포츠머스에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보장 받고자 이승만을 밀사로 파견하였다. 이승만은 목사 윤병구와 함께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국의 주권과 독립보전에 대한 청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친일파인 주미 한국대리공사 김윤정의 방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각주 추가 50) 이승만은 독립협회운동 당시 급진공화세력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으나, 선교사들의 배려로 1904년 8월 특별사면을 받고 11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60	㉢ 내용 추가 (1) 갑신 망명파 참여 : 박영효, 서광범 등 ① 군국기무처 폐지(6.25일~11.20일) :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이노우에(井上馨)를 공사로 파견하면서 군국기무처는 폐지되고 2차 개혁(내각 설치)이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 하려고 했다. ② 11월 21일(양 12.17)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다. 여기에는 기존의 개혁관료들과 박영효, 서광범 등의 새로운 개혁세력이 참여했다. 국내에 있었던 유길준도 적극 참여하였다. 정부조직 ① 내각 7부(총리대신 : 김홍집(5회,9-3급)) :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개칭(1895.4)(12·13회) (cf. 공무아문은 폐지) ② 궁내부 : 왕실이 내각에 관여 못하도록 함. 내각에는 총리대신과 7부 대신만 참여할 수 있었고, 궁내부 대신은 참여할 수 없었다. 규정과는 달리 국왕의 친임도 이뤄지지 않아 국왕이 크게 소외되었다.
64	㉢ <도식 추가해주세요> (연표실록 85p 도식)
85	㉢ 내용추가 2. 상공업 정책 : 동그라미 3번에 형광펜 부분 “황실과 ~~~ 가설하였다.” 추가

93	㉠ 번호 수정 및 내용 위치 수정 및 추가 (3) 결과 : 외교권 박탈(한국의 '보호국화') ① 이제 한국은 일본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대외적인 외교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② 각국 공사관의 철수(미국이 가장 먼저 철수, 프랑스가 가장 늦게 철수), 한국의 해외공관도 철수 2. 일제의 국권 침탈 (1) 식민지 통치기구 설립 ① 통감부·이사청 설치(1906.2) : 한국 황제 밑에 통감과 이사관을 파견하여 한국을 보호국화 하였다.(10서7) 3월에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다. 이사청은 기존의 일본 영사의 업무를 이관하여 일종의 지방 통치기구를 만든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행정을 통할하도록 하였다(개항장 및 기타 필요한 지점에 설치). ② 농공은행(1906) : 일종의 '산업은행'. '농공업의 개량·발달'을 명목으로 만든 것으로, 지방 금융을 장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각지에 가장 많은 지점 설치). → 후일 조선식산은행(1918)으로 변경(16국7) (2) 경제침탈 법령 ① <토지가옥증명규칙>(1906.10)(16국9) : 광무개혁 당시 금지시켜 놓았던, 외국인의 토지 소유 합법화 ② <광업법>(1906.7) : 기존의 광산이권 법적 공인
97	㉠ 내용추가 4. 고종의 반대운동 (☞ 심화부록 23 참조) (1) '을사조약' 이전 밀사외교의 전개 ① 이승만·윤병구 파견해 루즈벨트 면담(1905.8) : 러일간의 강화담판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포츠머스에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 고자 이승만을 밀사로 파견하였다. 이승만은 목사 윤병구와 함께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국의 주권 과 독립보전에 대한 청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친일파인 주미 한국대리공사 김윤정의 방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② 루즈벨트 딸 한국 여행시는 국민의 예로 대접하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함(1905.9) ③ 헐버트를 미국 대통령에 보내 도움 요청 친서 전달(1905.10; 포츠머스 조약 이후)(9·13-중) : 조미조약의 '거중 조정' 조항에 의거하여 미국이 나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7회). 헐버트의 면담요구는 거절되었다.(12회) (2) '을사조약' 이후 : 조약무효 활동 ① '보호조약'이 체결된 직후 헐버트에게 녹약은 무효라는 긴급 전문을 보냈고(11월 26일), 주프랑스공사 민영찬에게도 밀명을 내려 미국무장관 루트를 면담하게 하였다(12월 11일). ② 전 주한미국공사 알렌(Allen)도 고종으로부터 운동자금 1만불과 황제의 어새가 압인된 백지 친서 등을 전달받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벌였으나 미국은 고종의 호소를 모두 묵살하였다. 미국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친일적이었기 때문이다. ③ 이용익 파견 : 이용익을 프랑스로 파견해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일제 관헌에게 발각되어 실패. 이후 연해주로 향했으나, 결국은 1907년 암살됨. ④ <런던트리뷴>지에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친서 실림(더글러스 스토리 기자의 도움) → <대한매일신보>에 다시 전재됨(1907.1) ♣ 동정적 여론의 등장 :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는 《국제공법잡지》에 <한국의 국제법상 지위>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을사조약'이 강권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1906.2). 미국인 허쉬도 같은 입장의 주장 전개

2 민족해방운동

1. (애국)계몽운동

- (1) 대한자강회 해산(1907.8) : 고종황제의 퇴위, 정미7조약을 반대하다 <보안법>에 의해 강제해산(08지7,11·13법,11서 9,12일경2차/8회,8·10-3급). 고종황제 양위 시위를 하는 일진회와 대립한 것도 해산의 원인이 되었다(8-3급).
- (2) 대한협회 설립(1907.11~1910.8)¹⁾ : 고종 퇴위·정미7조약·군대 해산 이후 등장(08지7)
 - ① 대한자강회가 강제 해산되고 1907년 11월 오가키(고문이 됨)의 산파역에 의하여 구 대한자강회 회원들과 천도교 일파가 연합하는 형태로 구성²⁾ → 헌정연구회계(윤효정), 천도교계(권동진, 오세창), 황성신문계(장지연, 유근) 등 cf. 회장 남궁억, 부회장 오세창, 총무 윤효정(1908년 7월 회장 남궁억이 사임하고 김가진이 회장이 되면서 급속도로 친일화 되어 나갔다. 이후 일진회와의 연합론까지 제기되었다.)
 - ② 활동
 - ㉠ 자신들을 하나의 정당으로 간주 : 정치개혁에 의한 실력양성론 중시. 정당정치를 중시하여 통감부 통치 하에서 자신들을 하나의 정당으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함
 - ㉡ ‘한일병합’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일진회와 대립 cf. 이완용 내각의 독주에는 둘 다 반대.
 - ㉢ <<대한협회월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다가(1908.4~1909.3), <<대한민보>>를 창간(1909.6.2)
 - ㉣ 합방과 동시에 일제에 의해 해산. cf. 일진회도 합방과 함께 해산됨.
- (3) 흥사단 설립(1907.11) : 유길준이 설립(13회). 국민을 선비로 만들어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유길준의 근대개혁 구상을 보여줌. ‘합방’ 후 해산되었다가, 1913년 안창호가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무실역행’을 내세우며 부활시켰다.

3 “■ 정리 : 계몽운동 단체의 변화” 도식 → (삭제)

- (4) 신민회(1907.4(?)~1911)(07·08·10·11법,08·10·11지7,11서9/8회,1·2·4·5·7·8·10·11·13-중) : 비밀단체

● 날개

대한 신민회 취지서

그... 신민회는 무엇을 위하여 일어났뇨? 민습의 완부에 신사상이 시급하며 민습의 우미에 신교육이 시급하며, 열심의 냉각에 신제창이 시급하며, 원기의 쇠퇴에 신자양이 시급하며, 도덕의 타락에 신윤리가 시급하며, 문화의 쇠퇴에 신학술이 시급하며, 실업의 조체에 신규범이 시급하며, 정치의 부패에 신개혁이 시급이라. 천만가지 일에 신(新)을 기다리지 않은 바 없도다.(7-3급)

지리한 겹몽에 한 사람도 신을 원치 않는 이 없도다. 급급함이며, 오늘의 유신, 일일불급신이면 이는 아국이 일층 지옥에 함이라. 금일 신키 불능하며 명일 신키 불능하여 필경 만겁의 지옥에 함입하여 인종은 멸절하고 국가는 구허가 되고 말 것이니, 차시에 지하여 서고의 탄을 발한들 내하리오. 그러므로 오배는 마땅히 침을 망하고 찬을 폐하여 소구할 바는 차 유신이다. 심을 구하고 혈을 갈하여 실행할 것은 차 유신이라. ..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으로서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자유로서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신민회(新民會)의 발원하는 바며, 신민회의 회포하는 소이이니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 신단체를 조직 후 신국을 건설할 뿐이다(11서9/7-3급). ...

1) 설립

- ① 안창호가 발기(10-3급). 양기탁(14-중)·이동휘(12국9), 이승훈, 이동녕, 신채호 등 참여(12일경2차/13-중). 서북지역의 민족운동가들이 결성한 비밀 독립운동 단체(11법)
cf. 신민회 회원의 성향을 보면 평안도·황해도 지역의 기독교 신자가 많았다. 그리고 교사·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 ② 비밀결사(11지7,12일경2차) : 기존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밀결사 조직의 형태를 띠면서 합법적인 운동을

병행하였다(5-3급).

cf. 〈신민회취지서〉: 유신한 국민이 연합하여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성립하자는 취지로 설립(10지7)

●사료

신민회 4대 강령

1.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것
2. 동지를 발견·단합하고 국민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것
3. 각종의 상공업기관을 만들어 단체의 재정과 국민의 부력을 증진할 것
4. 교육기관을 각지에 설치하여 청소년 교육을 진흥할 것

2) 활동: 계몽운동(교육·식산) + 독립군 기지 건설

● 날개

신민회 독립운동기지 건설론

1. 독립군 기지는 만주 일대에 설치하되 후일 독립군의 국내 진입에 가장 편리한 지대를 최적지로 결정한다.
2. 최적지가 선정되면 자금을 모아 일정 면적의 토지를 구입한다.
3. 토지가 매입되면 국내의 애국적 인사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집단 이주하여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토지를 개간하여 경제적 자립을 실현한다.
4. 신한민촌에는 강력한 민단을 조직하고, 특히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사관을 양성한다.
5. 무관학교를 중심으로 강력한 독립군을 양성한다.
6. 강력한 독립군이 양성되면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국내에 진입하고, 국내 각계 각층의 국민과 내외 호응하여 실력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한다. 주요한, 〈안도산 전서〉

신민회는 표면적으로는 교육, 실업 등의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면에서는 해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등 적극적인 독립운동방략을 모색해 나갔다.

① 계몽운동(실력양성 주장)(14-중)

- ㉠ 민족기업 육성: 태극서관, 자기회사(평양) 등을 운영해 민족(독립) 자본 육성(11법/13-중)
- ㉡ 민족교육운동(7-3급): 오산학교(정주)·대성학교(평양)설립(08지7·9, 11지9, 11법, 12경간 일경2차, 13법/5·14회, 10·13-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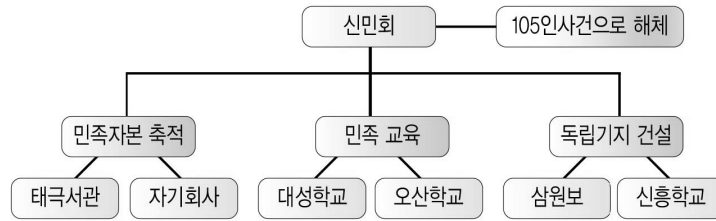
② 해외 독립군 기지 개척(12법/5·7·8·11·13-중)

신민회는 국내에서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점차 국외에서 독립군 기지의 건설 등 군사적 실력 양성을 꾀하였다.

- ㉠ 서간도 삼원보 지역: 이회영 6형제 일가가 개척. 독립운동 기지 건설(12일경2차/14-중), 신흥학교 수립(08지7)
- ㉡ 이동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
- ㉢ 국내에서 전개된 계몽운동 단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11법)
- ③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08지7, 10·11법, 11서9, 11지7/8회, 1·5·7·10-3급): 신민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치 체제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비밀 조직이었다.
- ④ 〈대한매일신보〉(기관지), 청년학우회(방계단체): 양기탁이 신민회 조직에 참여하면서 대한매일신보가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함(11국9, 12일경2차/13-중)(cf.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청년학우회는 신민회의 방계단체로 신민회 해체 후 안창호의 홍사단으로 이어졌다.

1) **사료** 〈대한협회 취지서〉 슬프다. 우리 한국이 동아 한 모퉁이에 있어 세상운수와 같이 진보치 못하니 수백년에 정치가 문란하여 교육이 퇴폐하며 산업이 쇠핍하여 마침내 스스로 설 힘을 잃고 인방(협회보는 우방이라 표현)의 구원을 받으니 말이 이에 미치니 부앙괴작(俯仰愧作)하도다. … 개인은 국가의 분자라. 그러므로 개인이 진보한즉 국가가 진보하고, 개인이 쇠패한즉 국가가 쇠패하야 … 이에 한 단체를 조직하고 명왕 대한협회라 하니 그 취지는 교육·정치·산업을 강구하여 사회지식을 발달하며 신진덕성을 배양하며 전국 부력을 증진하여 우리 국민적 자격을 양성함이니 이는 금일의 급무라. … 율희 원년 11월 10일〔대한협회 회보〕제1호(1908년 4월 25일 “대한협회 취지서”(국한문)/〈공립신보〉 1907

3) 해체 : 일제강점기 105인 사건으로 조직 와해(1911)(12일경1차2차/2·5·10-3급)



㉢ 대한 신민회 취지서 → (삭제 : 옆 날개로 이동시킴)

(5) (애국)계몽운동의 의의 및 한계

- ① 사회진화론의 영향에 따른 패배주의 인식 : 국권피탈의 원인을 내부적 모순으로만 인식
- ② 민족의식/민중의식 빈약 : 의병운동에 대해 비판적(‘비도’라 칭함)³⁾
- ③ 이후 애국계몽운동으로 이어짐 : 애국 계몽 운동은 일제에 대하여 정치적, 군사적으로 예측된 상태에서 전개되어 항일 투쟁의 성과면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민족 독립 운동의 이념과 전략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민족 독립 운동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맥켄지가 찍은 의병사진(14회) : 농민, 군인, 포수 등 여러 계층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2. 정미의병(후기의병)(11지9)

(1) 배경 : 고종 강제퇴위·한일신협약·군대해산(07국9,09법,12일경3차/6-3급)

(2) 특징

해산 군인이 합류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되고(09법/3-2급), 활동 영역도 간도와 연해주 등 국외로까지 확대되었다.

- ① 해산 군대가 의병 합세하여 의병 전쟁화(07국9,10법,11지9/5·14회,8-3급)
- ② 평민의병장 다수 등장(3-2급) : 신돌석, 홍범도, 차도선, 김수민 등 평민의병장이 다수 등장하고, 의병의 계층 구성도 더욱 다양해졌다(13법/3-2급).
- ③ 계급(신분)문제보다 민족문제 중시

(3) 13도 창의군(1907.12)(07국9,07·09·13법/8회) : 전국 연합의병 결성(13-중)

의병은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13도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진공작전을 펼쳤으나, 실패하였다.

- ① 양주에서 결성 : 총대장 이인영(13법), 군사장 허위, 관동(강원도) 진위대 중심.
- ② 평민의병장은 제외(의병장) : 신돌석, 홍범도, 차도선, 김수민 등 제외(8회,3-2급).
- ② 서울진공작전 전개(1908.1)(09법,11지9/3·6·8·14회,8·13-중)
 - ㉠ 국제법적 활동 : 서울 시내 각국 영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8회)
 - ㉡ 동대문 인근 전투 : 허위가 이끄는 선봉 부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해 전투(12지7/2-1급)

(4) 남한대토벌 작전⁴⁾(10법,11지9/5회) : 정미의병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의병세력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갔다.

● 날개

맥켄지의 의병 인터뷰

“당신들은 언제 전투를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아랫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기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

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나는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보다는 일본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을 돌아본 결과 내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일본군은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비인도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한국인은 비겁하지도 않고 자기 운명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다.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자유를 위한 투쟁》(한국의 독립운동, Korea's Fight for Freedom; 1920), 맥켄지(F. A. Mckenzie) —

일본군의 제천의병 진압 만행

내가 제천에 도착한 것은 이른 가을 더운 날이었다. 눈부신 햇빛이 언덕 위에 나무끼는 일장기를 쏘이고 일본군 보초의 총검을 비추었다. 나는 말에서 내려와 잣데미 위를 걸었다. 나는 일찍이 이렇게 철저한 파괴를 본 적이 없었다. 불과 1개월 전까지는 번잡하고 유복하던 촌락이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기와 조각과 회색의 잣데미가 줄지어 있었다. (07세9)

— 맥켄지,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 —

전국연합의병 결성

용병(用兵)의 요체는 고립을 피하고 일치단결하는 데 있다. 각 도의 군사를 통일하여 독이 무너질 듯 근기(近畿) 지방으로 밀려들어가면 온 천하를 우리 보물로 하기는 불가능하더라도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게 될 것이다. (12지7)

서울진공작전 : 동대문 인근 전투

군사장은 미리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함에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군에 명령을 전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격할 때, 대군은 긴 뱀의 형세로 천천히 전진하게 하고, …… 3백 명을 인솔하고 선두에 서서 동대문 밖 삼십 리 되는 곳에 나아가 전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서울로 공격하여 들어가기로 계획하더니, 전군이 모이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군이 갑자기 진격해 오는지라. 여러 시간을 격렬히 사격하다가 후원군이 이르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진하였다. (8회)

〈대한 매일 신보〉

이인영의 낙향

나라에 대한 불충은 어버이에 대한 불효요, 어버이에 대한 불효는 나라에 대한 불충이다. 그러므로 나는 3년 상을 치른 뒤 다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을 소탕하고 대만을 회복하겠다.

—이인영—

→ 이를 계기로 13도 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은 무위로 돌아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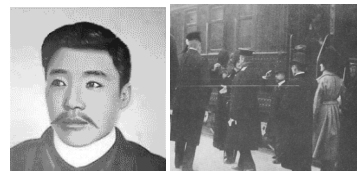
3. 의사·열사들의 활동

(1) 장인환·전명운 : 스티븐스 사살(1908.3)(10~3급)

- ① 장인환·전명운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일제의 주구가 된 스티븐스는 공개적으로 일제를 찬양하고 다니다 이에 분개한 장인환·전명운 두 의사에 의해 처단되었다.⁵⁾
- ② 미주 한인사회에 통합 한인단체인 대한인국민회가 결성(1910)되는 계기가 되었다(08지7).

(2) 안중근(1879~1910, 안응칠) : 이토 히로부미 사살(1909)(6·9회)

- ① 행적 :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 진압(1894) → 천주교에 입교 서구 지식(1895) → 을사조약 체결 이후, 삼흥학교, 돈의학교 등 교육계몽 운동 시작(6회) →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에는 국채보상 관서지부장이 되어 적극 참여(6회) → 1907년 고종퇴위·군대해산 등 이후, 의병운동에 투신. 이후 연해주로 건너가서 의병을 조직해 국내 진공활동을 벌임



안중근 / 사살 직전의 이토의 모습

- ② 이토 히로부미 사살(1909.10.26.)(6·9회) : 1909년 단지회(단지동맹)라는 비밀결사 조직해 이토를 만주 하얼

빈(12경북9)에서 사살함 → 연해주에 13도 의군이 결성되는 계기가 됨

③ 여순 감옥에서 사형(1910년 3월 형 집행)

- ㉠ <동양평화론> 집필(9회) : 여순 감옥에 있는 동안 집필하고 있었으나, 완성되지 못한 채 형이 집행되었다.
- ㉡ 해방 후 : 김구 선생이 서울 효창공원에 가묘로 모셨다. cf. 이봉창, 윤봉길, 김정기 의사의 유해가 이곳에 함께 안장되어 있다(9회).

● 날개

안중근 의사의 유언 : <동포에게 고함>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이전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1910년 3월 25일 사형집행 전날 안중근 의사가 평양 안병찬 변호사를 면회하고 동포들에게 보내는 유언내용).

황현의 절명시(7언절구 4수)

난리를 겪다 보니 머리가 하얗게 세었구나.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 이루지 못했도다.
.....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무궁화 이 강산은 이젠 망했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세상에 선비구실 어렵기도 하구나. (16서7)

(3) 이재명 :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단검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1909.12.12.).

(4) 자결순국 : ① 매천 황현(1910) ② 주러공사 이범진(1911)⁶⁾

4. 국채보상운동(1907.2)(11기9/1·12-중,6·12회) : 정미7조약 이전에 시작

(1) 배경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고문이 들어오면서 시정개선, 메가다 화폐정리사업 등 조선개발을 명분으로 들어 온 일본 차관이 1,300만환에 이르렀다.⁷⁾(12지7,12일경3차) 이로 인해 국민모금으로 정부가 진 빚을 갚아서 경제자립과 국권수호를 이룩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2) 과정(1907.2~1908) : 대구 서상돈·김광제에 의해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됨(14회)

이 운동은 상공인과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되어 전 국민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어 절약한 돈이나(금주·단연운동(6-3급)), 비녀와 가락지 등과 같은 패물을 팔아(8회) 마련한 돈을 성금으로 내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 ① 서울을 거치면서 전국 확산 : 국채보상기성회가 주도, 양기탁 등의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 참여·주도(12회/12-중)
- ② 언론기관의 참여 :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12회), <만세보> 등 참여(6회). 언론사를 중심으로 모금 활동 전개(12회)
- ③ 계몽운동단체의 참여 : 대한자강회의 참여 결의(6회)
- ④ 해외의 참여 : 이 운동은 일본까지 알려져 800여명의 조선인 유학생들도 참여하였다. 일본 유학생, 미주·러시아의 교포 등 참여(6·14회)
- ※ 한계 : 주로 서민들의 참여. 상대적으로 정부 고관이나 부유한 계층의 참여는 저조해 그 열기가 오래가지 못했다.

(3) 결과 : 통감부 탄압으로 좌절(14회)

- ① 베텔·양기탁을 횡령혐의로 구속(6·14회) : 일제는 대한매일신보 사장 양기탁의 국채보상금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려 모금운동을 좌절시켰다. 그리고 다른 사장인 베델은 영국에 요청하여 출국시켜 영사재판을 받도록 하였다.

② 민족 운동의 자극에는 큰 영향을 미침

● 날개

서상돈의 국채보상운동 결기문(6회)

애국심이어, 애국심이어, 대구 서공 상돈일세.
1천3백만 원 국채 갚자고 보상동맹단연회 설립했다네.
면실하는 마음 발양하니, 대한 국민 분명하도다.
지금 우리 국가 간난(艱難)한데 누가 이런 열성 가질 건가. ……
여러분, 여러분, 때를 잃지 말고 보상하오.
국채 다 갚는 날 오면 기쁘고 즐겁지 않을 손가.
힘써시다. 힘써시다. 우리 단천의 여러분이어.



국채보상결기대회 취지문

지금은 우리들이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한(韓)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는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3000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될 것이다.(12지7) 국토란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는 것이니(12일경3차) 우리가 어찌 베트남 등 멸망한 민족의 꼴을 면할 수 있으리오. 일반 국민들은 의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채를 모르겠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국채를 갚는 방법으로 2000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만일 그 액수가 미달할 때에는 1환, 10환, 100환의 특별 모금을 해도 될 것이다.(2-3급,14회) <대한매일신보>, 1907. 2. 21

동양평화론 서(序)

… 더구나 일로전쟁은 황백인종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었으니 … 아! 용과 범의 위세를 가지고 어찌하여 고양아뼀 따위의 행동을 하는가? … 그들의 동양평화한국독립 등 어구는 이미 천하만국 사람들의 이목에 익혀진 말로 금석처럼 믿고, 한국청국 두 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인데, … 오늘날,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차 밀려오는 환난을 동양인종이 일치단결해서 온 힘을 다하여 방어해야 하는 것이 제일 상책임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익히 아는 바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일본은 이러한 순리의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인종인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우의를 끊어, 스스로 도요새가 조개를 쪼려다 부리를 물리는 형세를 만들어 어부에게 돌 다 잡히기를 기다리는 듯하는가?(6회) … 스스로 백인의 전구가 되려는 것은 명약관화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동양평화를 위한 의로운 전쟁을 하얼빈에서 거행했던 것이니 이에 대한 답판이 여순구에서 결정된 후, 동양평화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심찰을 바랄뿐이다.(→ 사형 집행으로 인해 전체 내용이 완성되지 못하고, 목차와 서, 전감 부분 내용만 남음) 1910년 경술 2일

년 12월 13일(번역문)

<대한협회 강령> 1. 교육의 보급 2. 산업의 개발 3. 생명재산의 보호 4. 행정제도의 개선 5. 관민폐습의 교정 6. 근면저축의 실행 7. 권리, 의무, 책임, 복종의 사상을 고취

2) 천도교(손병희)는 이용구 출교 이후 적절한 기회를 엿보다 대한협회에 참여해 본격적으로 정치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3) **사료** <의병운동에 대한 계몽운동가의 시각> “여러분 동포가 의리를 잘못 잡고 생각이 그릇 들어서 요순 같은 황제폐하 칙령을 거스르고 흉기를 가지고 산야로 출몰하며 인민의 재산을 강탈하다가 수비대 일병 사오 명만 만나면 수명 의병이 더 당치 못하고 패하여 달아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 무수하니, 동포의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만 없애고 국가행정상에 해만 끼치는 일이라.” cf.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 <혈의누>의 작가 이인직이 <은세계>에서 의병항쟁에 대해서 평가한 글이다. 이인직은 이후 이완용의 비서로 있으면서 한일합방의 막후공작을 맡아했다.

■ 정리 : 한말 의병운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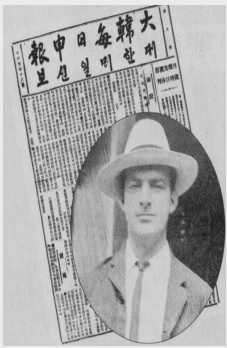
	을미의병(전기의병)	을사의병(중기의병)	정미의병(후기의병)
배경	• 을미사변, 단발령(13-중)	• 을사조약	• 고종 강제퇴위, 정미7조약, 군대해산
활동	• 을미사변 이전 : 안동 서상철 • 을미사변 이후 : 유성 문석봉(최초), 유인석(5-3급), 이소응(5-3급), 기우만·기삼연(장성), 민용호	• 을사조약 이전 : 원용팔(용석) • 최익현(+임병찬), 민종식 • 평민의회장 등장 : 신돌석	• 평민의회장 증가 : 신돌석, 김수민, 홍범도, 차도선 등 • 해산군인의 가세 : 의병전쟁화 - 13도창의군(1907.12) - 서울진공작전(1908.1) : 이인영, 허위 cf. 남한대토벌 작전(1909)
특징	• 신분적 한계 : 신분[계급]문제 > 민족문제 ① 고종의 해산조치로 해산(10법/8-3급, 13-중) ② 김백선 처형사건(유인석)	※ 과도기적 성격 • 점차 민족문제 중시 : 칙사논리에서 점차 국가의식 성장	• 신분[계급]문제 < 민족문제

㉓ 통합 기타 운동 정리

■ 언론활동 → 기본서 113p 표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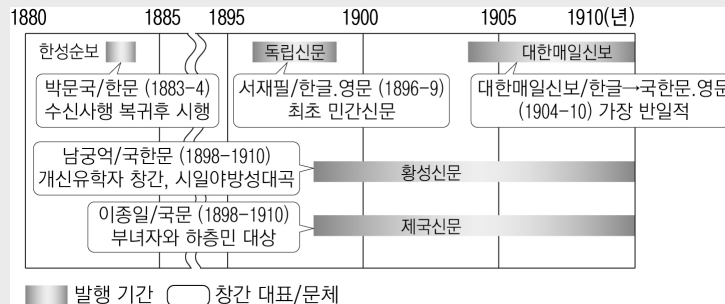
한성순보 (1883~4)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 박문국에서 간행한 한성순보였다. 한성순보는 국내 소식과 함께 서양의 신문을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폐간되었다. (1) 창간 : 3차 수신사행 후 박영효 일본인(이노우에 가쿠고로)의 도움 받아 추진 → (박영효 광주지역으로 좌천) → 박문국(博文局)에서 간행(1883, 판보) (2) 형식 : 순한문, 10일마다 간행, 최초의 근대신문. (3) 폐지 : 1884년 갑신정변으로 폐지 → 1886년 <한성주보>로 재간행 ※ 한성주보(1886.1~88.7) : 국한문(한문판에), 최초 근 (1) 창간 : 이노우에 가쿠고로 건의 → 박문국(김윤식) 지원, 강위 실무 담당 (2) 형식 : 부분별로 국한문·순한문·순한글 사용, 최초로 근대적 광고 실림
독립신문 (1896~1899)	1896년에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은 대중을 계몽하여 근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글판과, 외국인에게 우리의 처지를 홍보하는 영문판으로 발행되었다. (1) 창간 : 서재필, 최초의 민간신문 (2) 형식 : 순한글 신문으로 민중의 계몽에 크게 기여, 한글판+영문판 cf. 외세 입장에 대한 차이 존재 : 러·프에 적대적 / 영·미·일에 우호적
황성신문 (1898~1910)	(1) 창간 : 개신유학자 출신이 만듦(4회), ⁸⁾ 유학자 층의 지식인들이 주로 구독(5회) (2) 형식 : 국한문 혼용(5회), 일간 (3) 활동 : ① <시일야방성대곡> 사설(1905.11.20.) ^(12법/5-9회, 13-중) ②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③ '한일병합' 최초 호외발행 cf. 주필 : 장지연(1902년부터 사장), 박은식, 신채호 등
제국신문 (1898~1910)	(1) 창간 : 이종일 창간. (2) 형식 : 순한글, 하층민과 부녀자들 대상 계몽(일명 '암신문') ^(4-6회) . (3) 활동 : 기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첫 대판 신문

대한매일신보 (1904~1910) (11국9/5·6회, 3·4·9~3급)	(1) 창간(1904.7.18.) : 영국인 베델⁹⁾·양기탁에 의해 창간·운영¹⁰⁾(11국9/3·13~중)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 특파원으로 러일전쟁 취재차 왔다가 일본의 침략상을 보고 <대한매일신보> 발행(9~3급). (2) 형식 : 국한문·한글판·영문판 발행(9회) 한글판이 있어 한글 보급에 기여하였고(11지7), 영문판이 있어 외국에 한국소식을 알리는 데도 기여하였다. 영문판으로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발행 ① 1905.8에 국한문과 영문판(The Korea Daily News)(9회) 2개로 분리 ② 1907.5에는 한글판을 새로 창간해 3개의 신문이 됨(영문판은 영국신문의 특징대로 1면은 광고로 채우고 2면부터 기사를 게재함) (3) 활동 : 당시 최대의 발행부수 cf. 주필 :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등 ① 가장 반일적인 신문 : 강경한 항일논조 유지(9~3급)("일인 출입불가"라 써놓기도 함(6회) cf. 영국인이 경영해 검열을 덜 받음(3~3급,4·6회) ②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 친서 게재(11국9/5·6회), 을사조약체결 호외 ③ 국채보상운동 주도·적극 참여 : 모금운동 벌임(11국9/9~3급) ④ 신민회 기관지 : 양기탁이 신민회 조직에 참여하면서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함(11국9) ⑤ 유일하게 의병활동[무장활동]에 대해 호의적(9~3급) : 안중근 의거 게재(1909) ⑥ 신채호 <독사신문> 연재(09법)
기타	• 만세보(1906.6~1907.6) : 오세창(9회), 천도교 기관지(12일경2차/5회,9회), 1906.7부터 최초의 신소설(최초의 신문소설) <혈의 누> 연재 • 경남일보(1909) : 최초의 지방지. cf. 주필 장지연 • 대한민보(1909.6) : 대한협회 기관지(5회), 최초로 만평 실림 • 국채보상운동(1907.2~1908)에 참여 :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 신문지법(1907.7제정)에 의해 탄압받은 신문(12회) :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 '병합'되면서 모두 폐간되었다.
● 날개 [참고] 친일신문 한성신보(1895; 일인신문, 을미사변 관련), 국민신보(1906; 일진회 기관지), 대한신문(1907; 이인직이 만세보를 인수해 창간, 이완용의 보조금), 대동일보, 시사신문 등	
날개  베델(6·9~3급)	

[인물] 대한매일신보와 베델(배설)

베델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런던 데일리 뉴스'의 특파원으로 내한하여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고종의 친서를 게재하는 등 항일 언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또,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일제가 탄압하는데도 대한매일신보가 항일 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인 베델이 사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통감부는 1908년 5월에 영국 상하이 고등 법원에 베델을 제소하여 3주간의 금고 생활을 하게 하였다. 베델은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항일 언론 활동을 펼치다가 1909년 5월 1일에 심장병으로 병사하여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 정리 : 개항기 역대신문



2 종교운동 : 민족종교의 태동

동학은 제3대 교주인 손병희 때 친일 세력을 내쫓고 천도교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1905.12). 그리고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대중교가 창시되어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1909/1910).^(14일경¹천)

(1) 천도교 창시(1905.12, 손병희)¹¹⁾

- ① 한때 연합했던 일진회가 을사보호조약 청원 등 노골적인 친일로 돌아서자 손병희는 일진회와 갈라섰다. 손병희는 일진회가 동학 조직을 흡수하려 하자, 천도교를 창설하고 정통성을 지키려 하였다.^(11국9)

cf. 이 당시 출교당한 이용구는 별도로 친일 종교단체인 시천교(侍天敎)를 만들고 동학교단의 주요 재산을 독점하였다.

- ② <만세보> 창간 : 1906년부터 이인직의 《혈의 누》 연재

(2) 대중교 창시(1909, 나철)^(08국9/10-3급)

- ① 오적암살단을 조직했던 나철[나인영]·오기호에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가 창시되었다(1909년 단군교 → 1910년 7월 대중교).
- ② 중광단 조직(1911.3)^(10-3급) : 간도지방에서 만든 무장단체로, 만주지방 무장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3.1운동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하였다.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대중교는 일제의 심한 탄압을 피해 근거지를 만주로 이동하여 민족 교육 진흥 운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광단과 북로 군정서군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다.)

(3) 유교/불교/천주교·개신교 등

유교에서는 박은식이 유교구신론을 제창하면서 근대 교육과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고, 불교에서는 한용운이 조선 불교유신론(10년 저술 → 13년 간행)을 내세우며 불교의 혁신과 자주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1) 박은식

- ① <유교구신론>(1909)^(11국9,12법/2-2급,12-13-중) : 양명학의 입장에서 유교개량 주장.¹²⁾
 - ㉠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을 지어 유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11국9)
 - ㉡ 이러한 양명학풍의 주장은 정인보에 의해 계승됨
- ② 대동교 창시(1909)(9회) : 양명학의 영향과 대동사상에 따른 세계평화주의의 주장(대동사회 강조). 친일 유교

단체인 대동학회에 대한 대항의 의미도 가짐. 국권피탈로 붕괴

- 2) 한용운 : 한용운은 일본 불교계의 침투에 대항하면서 민족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1국9)
- 3) 천주교는 1886년 프랑스와 수교한 이후 선교의 자유를 얻어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고, 개신교는 1880년대에 서양 선교사의 입국을 계기로 교세를 넓혀 갔다.

● 날개

박은식 ‘유교구신론’ (16일경2차/9회)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미하여 많은 성인이 뒤를 이어 전하고 많은 현인이 강명(講明)하는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대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째서이며, 근세에 이르러 침체 부진이 극도에 달하여 거의 회복할 가망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뇨, …… 그 원인을 탐구하여 말류(末流)를 추측하니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改良)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며 … 여기에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3대 문제를 들어서 개량 구신의 의견을 바치노라. 유교계의 첫째 문제점은, 유교파의 정신이 전적으로 제왕 편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개혁하려 한 의지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들이 유학자를 찾아오기만을 앉아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라는 것이다. … 세 번째 문제는, 한국의 유가에서는 ‘간이직절’(簡易直切)한 법문에 등한시하고 ‘지리한만’(支離汗漫)한 공부만을 숭상하였다. 한국 유교 600년 역사에 유학자가 전수한 종지(宗旨)는 주자학 일색이었다. …

〈서북학회 월보〉(1909.3)

[참고] 친일유교단체 : 대동학회(1907.12)(11국9) → 공자교로 개칭(1909)

- 이토 통감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 : 고종의 강제퇴위, 허위의 의병연합군 조직 등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제는 막대한 유교계의 영향력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 신기선을 회장으로 내세움 : 신기선 〈대동학회 월보〉 간행
- 〈대한매일신보〉 : 대동학회의 친일행위 지적. 신기선을 3대 매국노라고 규정.

[참고]당시 한국에 관해 쓴 외국인들의 글

- 헐버트 : 〈사민필지〉, 〈한국평론〉(월간지), 〈대한제국 멸망사〉(1906)
- 이사벨라 비숍(13-종) :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1898)
- 그리피스 : 〈은둔의 나라 한국〉(1882)
- 맥켄지 : 〈대한제국의 비극〉(1908), 〈한국의 독립운동〉(자유를 위한 투쟁, 1920 : 3·1운동까지 기록)

3 국학운동 : 국어와 국사연구

1. 국어

- ① 국어 분야에서는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가 국·한문 혼용으로 제도화되고, 학교 교육에서 국·한문체 교과서가 사용되면서 언문일치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다. 유길준의 서유견문도 국·한문 혼용체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② 1907년에는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시경, 지석영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2. 국사

- ① 신채호는 대한 매일 신보에 ‘독사신문’(1908)을 연재하여 일본의 식민 사관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주의 사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6일경2차)
- ② 신채호, 박은식 등의 활약에 힘입어 근대 계몽사학이 성립 : 나라를 구한 위인의 전기를 써서 보급하고, 외국의 건국과 흥망의 역사서를 번역하여 민족의 독립의지와 역사의식을 높이려 하였다.

4. 근대 문화의 유입

1. 교육운동

서울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서양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많은 학교를 세웠다. 배재학당(미국인 아펜젤러, 감리교, 1885), 이화학당(미국인 스크랜턴, 1886), 경신학교(미국인 언더우드, 장로교, 1886), 정신여학교(미국인 엘러스, 장로교, 1887) 등을 세웠다.(16일경2차) 이는 고종과 왕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특히 왕비는 여학교 설립을 적극 후원했다.

2. 의료/건축물

(1) 근대적 병원

정부는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하고, 선교사 알렌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지식영은 중두법을 연구, 보급시켜 국민 보건에 공헌하였다. 그 뒤에, 정부는 광제원과 대한 의원 등을 설립하여 신식 의료 기술을 보급하였고, 전국 각지에 자혜의원을 세워 의료시설을 확장하였다. 한편, 개신교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등을 세워 의료보급에 기여하였다.

- ① 세브란스 병원(1902기공, 1904완공; 현 연세대 병원) : 광혜원(1885) → 제중원(2주뒤 이름 변경 : 정부의 지원을 받는 왕립병원 역할) → 1894년 이후 제중원은 정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민간 병원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 1900년 미국에서 기금 모금 운동 당시 세브란스가 15,000달러 기증. 이 돈으로 1904년 병원을 완공하고, 기증자의 이름을 따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로 지음. → 해방 이후 1957년 연희대학과 합쳐져 연세대학교로 개편됨.
- ② 대한의원(1907; 현 서울대 병원) : 〈의학교관제〉 제정·공포(1899.3 : 교장 지식영). 최초로 설립된 국립병원인 내부병원(内部病院)에서 기원(1899.4) → 1907년 〈대한의원 관제〉 반포. 내부 소관의 광제원(廣濟院), 학부 소관의 경성의학교 부속병원, 궁내부 소속의 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설립(1907, 의정부 직속의 의료기관) → 처음엔 광제원에서 개원했다가, 1908년 건물이 준공되자 이전하였다. cf. → 조선총독부 의원(1910.9) → 경성제국대학 병원(1926) →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이 됨

(2) 근대적 건축물

- ① 서양식 건물 : 독립문(1896착공~1898완공)은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떠서 건립한 것이고, 르네상스식의 건물인 덕수궁 석조전(1900~1910완공, 영국인 하딩이 설계), 중세 고딕식의 건물인 명동 성당도 이 무렵에 세워진 것이다.
- ②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 건립(1908)(12법, 13경간)

2. 과도기적 근대 문학의 출현

- ① 신체시 : ‘해에게서 소년에게’(최남선, 잡지 《소년》에 발표 : 최초의 신체시, 1908)
- ② 신소설 : 《혈의누》·《치악산》·《귀의성》(이인직), 《자유종》(이해조), 《안의성》·《추월색》(최찬식), 《금수회 의록》(안국선) 등
- ③ 창가 유행 : 독립가, 학도가 등(6~3급)
- ④ 창극 :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 공연(1908). 연극부문에서는 신극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졌다.

3. 창경궁 동물원·식물원으로 만들(민족정기 훼손)(13회, 13-중) :

일제는 고종 퇴위 후 순종을 창덕궁에 이어시키고,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의 궁궐을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 정리 : 개항기/한말 설립된 사립학교

외국인(선교사)이 세운 학교		민족 사학	
배재학당 (아펜젤러, 美)	서울, 1885 외국인이 세운 최초 사립	흥화학교(민영환)	1895

이화학당 (스크랜튼부인,美)	서울, 1886 최초의 여자사립	보성학교(이용익)	서울, 1905
경신학교 (언더우드,美)	서울, 1886		
정신여학교 (엘러스,美)	서울, 1887		
송실학교 (베어드)	평양, 1897 외국인 세운 최초지방사립	양정의숙(엄주익)	" . 황실인사
배화여학교	개성, 1898	취문의숙(민영휘)	"
송의여학교	평양, 1903	숙명여학교(엄귀비)	" . 황실인사
		진명여학교(")	서울, 1906. "
보성여학교	선천, 1906	대성학교	안창호, 1907, 평양
		오산학교	이승훈, 1907, 정주

㉢ 제7-2장 국권피탈 : '한일병합'(1910.8) → 이 파트 삭제함

㉢ 내용수정 및 추가

172

㉢ 노동자·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을 적극 지원(08지7)

㉠ 광주학생운동 당시 진상조사단 파견(07법/13회,10·13-중) & 민중대회 시도(12·13일경1차) : 광주학생운동을 대중으로 확산하고자 민중대회를 시도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주요간부와 활동가 90여 명이 검거되는 사태에 직면했다(1929,12).

㉡ 노동 쟁의나 소작 쟁의, 동맹 휴학 등을 지원하였다.

㉢ 이들은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열어 조선인에 대한 착취 기관 철폐(동척 폐지 주장), 기회주의 배격,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 실시와 생활 개선 등을 주장하고, 일본인의 조선이민을 반대하였다(13일경1차).

㉢ 내용수정 및 추가

180

1. 1919년 3.1운동 직후 : 독립군단의 발족과 무장투쟁의 전개

3·1 운동 이후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많은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의 일제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 파괴하고 일본 군정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 내용수정 및 추가

181

2 무장투쟁의 전개(1920)

1920년에는 흥변도의 대한 독립군과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 등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16일경2차)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켜 우리 동포를 학살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려 하였다. 이에, 독립군 부대들은 연해주의 자유시로 옮겨 갔으나, 적색군에 의해 무장 해제를 당하였다(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은 다시 만주로 이동하여 각 단체의 통합 운동을 추진하여,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조직하였다. 이 가운데 참의부는 임시 정부가 직할하였다.

㉢ 내용수정 및 추가

184

(2) 3부의 성립(07법,10법,12국7) : 군정과 민정을 갖춘 자치 기구(12경북9/8-3급,9-3급)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재만 동포의 자치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자체의 무장 독립군을 편성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일제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위의 통합군단들은 무장투쟁기반 뿐 아니라 거주 한인들의 자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이들은 대체로 3권분립체제를 구성해 정부의 형태를 갖추었다(11지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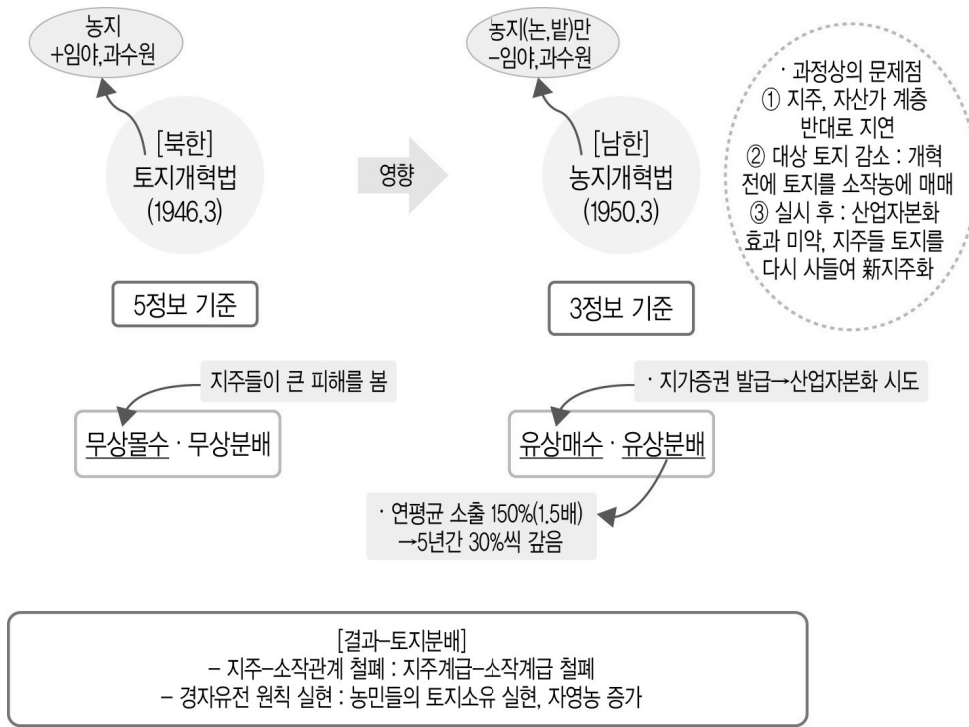
186	㉠ 내용수정 및 추가 ■ 임시정부의 활동 3·1 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은 조직적으로 독립 운동을 추진하고, 국민 국가 건설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과 연해주, 상하이에 각각 정부가 조직되었고, 마침내 이를 통합하여 상하이에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1919. 9.).
187	㉠ 내용수정 및 추가 2.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 : 상해 임시정부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민주 공화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 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 분립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3. 임시정부의 활동 초기의 임시 정부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민족 독립 운동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중추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였다. 또, 연통제와 교통국 등을 통하여 독립 운동 자금 모금과 정보 수집에 기여하였다. 임시 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 임시 정부는 애국 공채를 발행하고, 기관지로 독립 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190	㉠ 내용수정 및 추가 1) 국민대표회의 개최요구(12법) ① 박은식·원세훈·김창숙 등의 임정 비판 선언문(1921.2, 상해) : 〈아 동포에게 고함〉 원세훈 등 14인이 ‘우리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임시 정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적인 독립운동의 방침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구체화되었다. 이에 국내외 거의 모든 독립운동 세력이 대표를 파견한 가운데 국민대표회의가 상하이에서 열리게 되었다.
217	㉠ 내용수정 및 추가 (3) 한국광복군 창설(1940.9)(07법,08군9,09법,10법(2),11법,12경복교,13경간/2-3급,8회,13회) 1937년에는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위협하자,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무장 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16일경2차) 임시 정부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한 후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16일경2차) 또, 미국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4) 건국강령 공포(삼군주의, 1941)(12지9,16국7/13회) 일본의 패망에 대비하여 조소앙이 제창한 삼군주의를 채택하여 1941년 제정, 공포한 것이다. ㉡ 사료추가 한국독립당 창당(1940) : 3당통합 조선 혁명당,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은 이제부터 다시 존재할 조건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각기 해소될 것을 전제로 하고 신당 창립에 착수하였다....(중략)...그러므로 신당은 보다 큰 권위, 보다 많은 인원, 보다 광대한 성세, 보다 고급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 독립 운동을 보다 유력하게 추진케 할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며 3당 자신은 이에 해소됨을 선언한다.(13수능)

	건국강령 공포(1941) :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 민족의 의지와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반일 독립 및 정치·경제·교육 균등의 삼균 제도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새 민주주의 건국강령을 발표하는 동시에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역량은 임시정부에 집결되어야 한다는 포고를 냈다.(14수능) 『국내외 동포에게 고하는 글』
218	(1) 조선의용대 창설(1938.10, 우한 한커우)(08군9,11기9,12법,12경북9/8회,9-3급)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 계통 인사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협조를 얻어 조선 의용대를 조직, 활동하였으며, 조선 의용대에서 분화된 화북 지방의 조선 독립 동맹 계열은 조선 의용군을 결성하고 중국 공산당군과 연합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226	㉠ 사료추가 카이로선언(1943.11) 우리 동맹국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취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펑 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에게서 빼앗은 지역을 모두 중화민국에 반환할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략)… 그리고 우리 세 나라는 현재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하에 있음을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적당한 절차를 거쳐 : ‘in due course’) 한국을 자주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16국7) ㉡ 내용추가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고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준비해 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계열인 중국 화북 지방의 조선 독립 동맹이나 만주 지역에서 항일 운동을 전개하던 단체, 그리고 국내의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 건국 동맹도 각각 민주 공화국 건설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였다.
231	좌우의 대립은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격화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 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신탁 통치에 반대한 우익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에 찬성한 좌익이 대립하게 되어, 결국 자주 독립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민족 분단의 길로 가게 되었다.
234	㉠ 내용추가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 단체 선정 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
238	㉡ 내용추가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 4.).

- 4) **사료** <‘남한대토벌 작전’(1909)> (폭도는) 특히 황해 동남부 및 경기 서북부 일대, 소백산 즉 강원도,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경계 부근, 섬진강 서쪽 지방인 전라북도 서남부 및 전라남도에서 빈번히 출몰하였다. 집단 규모는 1백에서 수백을 헤아렸다. 이 밖에 다른 지역은 거의 진정되어 폭도 세력은 이상 세 지방에 국한된 듯한 느낌이 있었다. 전년(1908년) 7월부터 금년 6월에 이르는 1년 동안은 달마다 총출한 폭도 총수는 대략 3천 정도로 적세는 거의 고정된 듯 보인다. 그들의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교묘해졌다. 첩보 근무 및 경계법 등은 놀랄 만큼 진보되고 행동도 더욱더 민첩하여 때로는 우리 토벌대를 우롱하는 듯한 태도로 나올 때도 있다. 세력이 때로 커지고 작아졌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과연 어느 때 완전 평정이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게 되었다. -조선폭도토벌지-
- 5) **사료** 1. 스티븐스의 친일 활동(정교,《대한계년사》, 융희2년)

㉠ 표 삭제 후 도식으로 수정

254



㉡ 내용추가

257

허정의 과도정부(11법/10-3급)

(1) 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 : 반공·보수적 특징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도 처음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부정축재자 문제도 처리하지 못했다.

(2)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개헌(3차 개정, 1960.6.15.)(08법, 10지9, 12경북9, 12국7/9회, 10-3급)

국무총리에 실권, 대통령 간선제(국회 선출)(9회) / 양원제(참의원, 민의원)(9회) / 지방자치제 실시, 대법관 선거제 / 공무원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규정

4·19 혁명이 일어났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 내용추가

260

군부 세력은 비상 계엄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민정 복귀의 약속을 외면한 채 헌법을 개정하여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다(1963).

㉣ 내용추가

3. 1965년 : 정치자금의 유입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또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스티븐스

261	㉠ 사료추가 3선 개헌 반대 투쟁 우리는 이제 3선 개헌을 강행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반역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에도 현혹됨이 없이 헌정 20년간 모든 호헌 세력들의 공통된 신념과 결단 위에서 전 국민의 힘을 뭉쳐 단호히 이에 대처하려 한다. 집권자에 의해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대가 끝내 배신당할 때, 조국을 수호하려는 전 국민은 요원의 불길처럼 봉기할 것이다. 우리는 날로 그 우방을 확장시키고 있고, 선악의 대결과 진부(眞否)의 결전에서 용솟음치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자유 국민의 조국은 영원하다. 영원한 조국을 가진 국민은 용감하다. 전 국민이여!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 수호 대열에 빠짐없이 참여하라.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
265	㉠ 정리 <남북통일의 기운과 배신> 표 아래에 내용추가 •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 1970년대에 들어와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회담을 열었다.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 7·4 남북 공동 성명 :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 합의 문서. 이를 계기로 국내외적인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곧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고,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유일 지도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참고추가 ♣ 유신 체제(維新體制) : 의회주의와 삼권분립의 헌정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269	㉠ 내용추가 국민은 민주화를 요구하였으나, 12·12 사태로 군사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압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작된 5·18 민주화 운동도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언론 통폐합, 삼청 교육대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였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집권 기도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270	㉠ 내용추가 4. 대외관계 미국 레이건 집권. 카터의 인권외교를 철회하고, 반소블록을 강화(7회)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1) 미국 귀국 후 샌프란시스코 기자회견 내용요지(1908.3 임시휴가)

① 일본은 한국을 보호한 이후 유익한 일을 많이 했다. 그리하여 양국 국민의 교제는 점점 친밀해 지고 있다.

②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방법은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과 같다.

271	㉠ 내용추가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272	㉠ 내용추가 3. 통일운동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1991. 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274	㉠ 내용추가 1993년에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다. 또,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신군부 세력을 법정에 세우고, 5·16 군사 정변 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275	㉠ 내용추가 1998년에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고, 남북 평화 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 6·15 남북 정상 회담을 실현하였고,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이산 가족의 상봉을 통해 평화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③ 조선에 신정부(일제의 괴뢰정부)가 조직된 이후 여기에 까지 못한 정치인들은 일본에 반대하고 있지만 농민이나 일반 민중은 전과 같이 정부의 확대를 받지 않으므로 모두 일본인을 환영하고 있다.

(2) 공립협회 대표단의 항의에 대한 연명 : 한국에 이완용과 같은 충신이 있고 이등박문(이토)이 있는 것은 한국과 동양의 행복이다. 내가 한국의 정황을 보니 태황제(고종)의 실력이 심하고, 완고한 수구당은 백성의 재산을 수탈하고, 민중은 우매하여 독립의 자격이 없다. 말하자면 일본이 탈취하지 않았다면 이미 러시아에게 병합되었을 것이다. 내가 일본의 정책을 찬양한다고 신문에 게재한 내용은 사실이다. 정교《대한계년사》, 융희2년

사료 2. 스티븐스 사살 이유(장인환·전명운의 의거) : 한국이 국가와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고문으로 고빙하였는데 한국의 국록을 먹고 그 직임을 이용하여 한국의 원수 일본에 협조하여 한국을 모해하니, 그 증거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의 기사를 보아서 알 것이다. 이 같은 배신자를 용납하면 갈수록 우리나라를 모해하여 망하게 할 것이므로, 마음에 분기가 발하여 내 몸을 희생하여서 국가의 적을 없애 배신자를 징계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행동을 살피다가 기차역에서 총을 발사하였다.



전명운

장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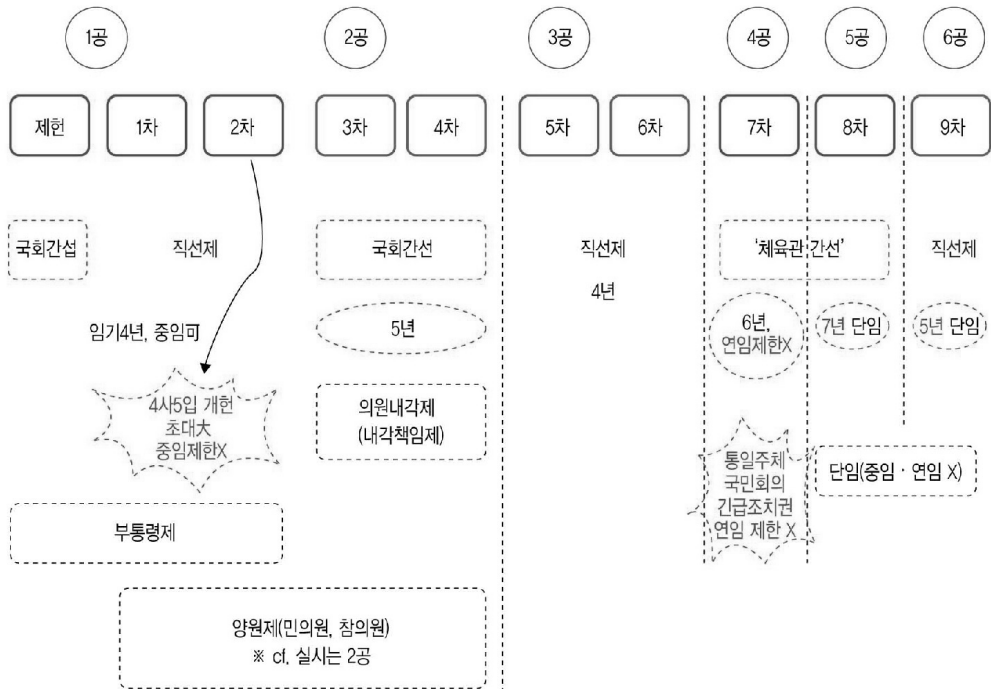
(6) **사료** <전 주러공사 이범진의 유서> [이범진이 영문 전보로 보낸 유서] 친애하는 황제 폐하, 우리의 조국은 패망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모든 권력을 빼앗기셨습니다. 소인은 적에게 복수할 수도, 적을 응징할 수도 없는 무력한 상황에 처하여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인은 자결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소인은 오늘 생을 마감합니다. [러시아 경찰당국에 보낸 유서 : 자결이유] 그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고 지극히 평정한 마음 상태에서 자결한 것이며, 이는 조국이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명분이 없고 적에게 복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911년 1월 26일(러시아 구력 1월 13일)

(7) **사료** <일본 차관공여정책의 본질> 조선 정부에 금전을 대여하자는 것은 바로 조선에서 우리나라의 실리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조선을 도와 독립을 공고히 하며 내정을 개혁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단순히 이웃 나라와의 우호 관계 때문

㉠ 새로추가

정리 : 역대 헌법의 변천 → 새로 추가함

280
~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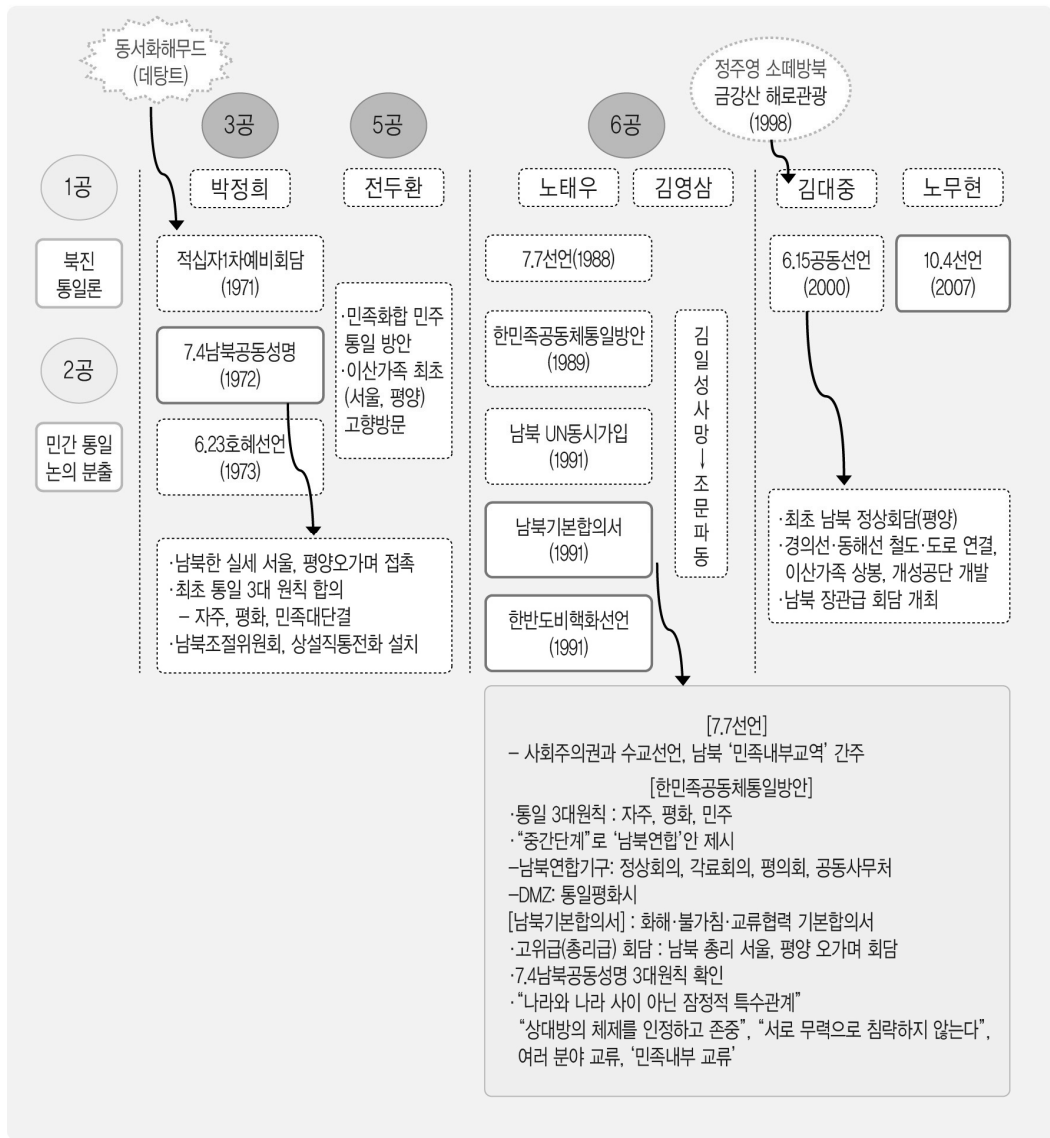
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조선에서 우리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 강국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간섭 구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국도 이집트에서 자본을 부식하면서 실리적인 입지를 닦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의 구실을 마련하려면 조선에서 실리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한 다음 재정상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뻗쳐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갑오개혁 당시 주한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자국 정부에 보낸 전보>

- 8) ※ <경성신문>(1898.3; 사장 윤치호, 주2회) → <대한황성신문>(1898.4; 사장 윤치호, 주필 유근) → <황성신문>(1898.9; 사장 남궁억, 일간)
- 9) ※ 베델 : 영국 <데일리뉴스> 통신원으로 러일전쟁 취재차 왔다가 일본의 침략상을 목도하고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 창간. 일본의 항의로 상해 영사재판에 회부되어 수형생활을 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1909년 사망.
- 10) 국권침탈 후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가 사들여 '대한' 두 자를 떼어 내고 <매일신보>로 발행하였다(<경성일보>에 통합시켜 발행 : 총독부 기관지로 전략함). 이는 무단정치가 유일한 한글일간지로 일제의 어용신문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192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나오면서 이들과 대항했고, 1940년 이 두 신문이 폐지되면서는 다시 유일한 한글일간지가 되어 해방시까지 존속했다.
- 11) 천도교 창시의 배경 : ① 손병희의 교권장악과 일본유학 : 동학농민운동 이후 관군의 추적으로 동학교도들은 산골로 피해 다녀야만 했다. 그러다가 1898년 최시형이 관군에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손병희가 1900년 교권을 장악하였다. 손병희는 이후 개화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01년 일본으로 유학가서 그곳에 망명해 있던 오세창, 박영효 등과 접촉하였다. (※ 손병희는 일본에서 <삼전론>·<명리전> 저술(1903)) ② 동학의 민회적 발전시도와 위기 : 손병희는 러일전쟁 중인 1904년에 진보회(進步會) 등을 설립하여 민회운동을 전개하고, 1904년 12월에는 일진회(一進會)와 연결하여 대한제국 정부의 개혁을 이루려 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일진회를 이끌던 손병희의 심복 이용구가 1905년 11월 5일 '보호청원선언'을 발표하고, 2주 뒤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의병들을 중심으로 반일진회운동과 반동학운동이 전개되었다(많은 동학교도에게 피해가 발생). ③ 천도교 창시(1905.12) :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손병희는 1905년 12월 천도교(天道敎)를 창시하였다. 그리고 '교회부리운동', 즉 일진회와 천도교의 부리운동을 전개하고, 이용구 등 60여 인을 출교시켰다.
- 12) 유교개량 : ㉠ 군주중심에서 인민중심으로, ㉡ 소극적 폐쇄성에서 적극적 전파활동으로, ㉢ 변세한 주자학풍에서 쉽고 질실한 명리학풍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



손병희 →
날개로 이동

정리 : 역대 통일정책의 변천 → 새로 추가





blog.naver.com/suhumin

대한민국 공무원 · 경찰공무원 · 자격증수험생을 위한 종합 정보교양지